

석사학위논문

제주 방언 부사 연구

지도교수 김태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갑순

2006년 8월

제주 방언 부사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문 갑 순

문갑순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제주 방언 부사 연구

문갑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태곤

제주도 방언은 타 지역의 방언들에 비해 특유의 독자성을 유지해 왔으며 희귀하고 귀중한 고어(古語)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 국어 연구의 보물 창고로도 여겨진다.

제주 방언의 특이한 것 중에서 독특한 부사가 표준어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부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제주 방언에는 표준어와는 다른 맛깔스러운 느낌과 독특함을 보이는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 방언 자료집이나 사전에만 실려 있고 실제로 젊은 언중들이 쓰지 않아서 그 가치를 인식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노년층 언중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 부사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고 제주 방언의 특질을 찾아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으로는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부사와 일부 노년층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사 중에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부사는 그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의성어나 의태어, 첩어를 제외한 본래부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주 방언 자료를 조사하여 추출한 바를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의 풍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 방언 부사의 갈래를 최현배의 분류 방식(시간, 처소, 정도, 상태, 화식, 접속 부사)에 적용시켜 나눈 후 각각의 예들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를 주로 부사가 한정하는 용언(동사, 형용사)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즉 동사와 잘 어울리는가, 형용사와 잘 어울리는가를 살핀 결과 방언 본래부사는 동사와의 호응 빈도수가 형용사보다 훨씬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제주 방언 부사의 기능을 정리하면 첫째, 수식 기능[정도, 상태, 시간, 처소부사의 경우] 둘째, 시간표시 기능[시간부사의 경우], 셋째, 공기(共起)기능[화식부사의 경우]을 가진다는 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편,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지역 특수 어휘가 많고, 둘째, 기본 의미는 같으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가 많으며, 셋째, 고어(古語)들이 많이 잔존해 있다는 점, 넷째, 한 단어에 대해서 그것의 다양한 형태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ㅇ’의 접미를 통한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주 방언은 타 지역과 크게 구별되는 독자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근래 들어 여러 요인으로 급속하게 표준어화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의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주 방언의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노년층이 생존해 있는 기간 안에 풍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것의 분석과 문법 체계의 정립 등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 | |
|-----------------------------------|-----------|
| <국문초록> | i |
| I. 서론 | 1 |
| 1. 연구 목적 | 1 |
| 2. 연구 방법 | 2 |
| 3. 선행 연구 | 3 |
| II.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 5 |
| 1. 본래부사와 전성부사 | 5 |
| 2. 국어 부사의 분류 | 8 |
| 3. 제주 방언 부사 용례 | 14 |
| 4.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 26 |
| III.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 | 31 |
| 1. 시간 부사의 호응 | 32 |
| 2. 처소 부사의 호응 | 37 |
| 3. 상태 부사의 호응 | 40 |
| 4. 정도 부사의 호응 | 44 |
| 5. 화식 부사의 호응 | 51 |

| | |
|----------------------------|----|
| IV.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 | 56 |
| 1. 지역 특수 어휘 | 56 |
| 2. 미세한 의미 차이 | 58 |
| 3. 고어의 잔존 | 59 |
| 4. 여러 형태의 공시적 사용 | 61 |
| 5. 부사 만들기의 특이성 | 62 |
| | |
| V. 결론 | 63 |
| | |
| 참고 문헌 | 67 |
| | |
| Abstract | 70 |

I. 서론

1. 연구 목적

방언은 그 지방만이 간직한 고유 언어로서, 그 지방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는 언어이다. 특히 제주도는 방언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큼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특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방언을 이해하는 일은, 제주인의 풍속과 인심을 파악하여 지역민들의 성정을 순화하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보존 가치가 두드러진 소중한 문화 유산인 제주 방언이 점차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것의 분석과 문법 체계의 정립 등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의 모습을 확인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방언은 우리 나라 각 지역의 방언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어휘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나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방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도 제주도 방언은 그 고장의 토박이가 아니라면 구사하기 어려울뿐더러, 청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방언이다. 제주도 방언은 육지의 방언들에 비해 특유의 독자성을 유지해 왔으며 희귀하고 귀중한 고어(古語)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 국어 연구의 보물 창고로도 여겨진다.

그 동안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제주 방언에서 특이하다 할 수 있는 점으로 부사의 풍부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제주 방언에는 표준어와는 다른 맛깔스러운 느낌과 독특함을 보이는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 자료집이나 사전에만 실려 있고 실제로 젊은 언중들이 쓰지 않아서 그 가치를 인식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노년층 언중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 부사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아 제주 방언의 특질을 찾아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부사와 제주 출신 노인층이 사용하고 있는 부사 중에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어 사전에 실린 부사의 수효는 대략 1,129개인데 이것은 이형태나 중첩형을 각각 하나로 잡아서 계산한 것이다. 부사는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의성어나 의태어, 첩어를 제외한 본래부사와 그밖에 제주 출신 언중들이 쓰는 부사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제주 방언 부사를 최현배의 분류 방식에 적용시켜 그 용례들을 찾아보고,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살핀 후 호응 관계를 살펴 부사의 성질을 밝히고, 제주 방언에서만 찾을 수 있는 어휘적 특징도 찾아보기로 한다. 이 때 표기는 『제주어 사전』 부록에 실린 ‘제주어 표기법’에 따르고, 인용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원문 그대로의 표기를 적용하겠다. 다만, 『제주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언중들이 사용하고,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은 ‘제주어 표기법’에 맞추었으며, 인용문은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었다.

3. 선행 연구

제주 방언 자료집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다. 석주명(1947)의 『제주도 방언집』이 그것이다. 이후 박용후(1960, 1988)의 『제주 방언 연구 (자료편)』과 현평효(1962, 1985)의 『제주도 방언연구 (자료편)』이 간행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이 출간되었다.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소창진평(小倉進平:1911년)에서부터 비롯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형태·통사론적 연구로는 이승녕¹⁾, 현평효²⁾, 성낙수³⁾, 강정희⁴⁾ 등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고, 어휘론적 연구로는 박용후⁵⁾, 현평효⁶⁾, 강영봉⁷⁾ 등이 있고, 문법 분야에서는 문순덕⁸⁾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개별 언어 영역에 대해 이루어져 왔고, 문법 분야에서는 활발히 논의되는 일부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어휘론 분야에서는 명칭이나 단어의 의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품사론인 경우 ‘부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단지 반복부사⁹⁾나 상징어¹⁰⁾의 경우에 한해서 연구된 경우가 몇몇 있고 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 이승녕(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 5, 탑출판사

2)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3) 성낙수(1975),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4)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5)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6)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1 (자료편)』, 정연사

7) 강영봉(1993), “제주도 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 논문

8) 문순덕(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세림

9) 강공택(1986), “제주방언의 반복 복합부사 구조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이영희(1982), “제주도방언의 상징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따라서 필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늘 제주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제주 방언 연구를 하게 되었다.

Ⅱ.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1. 본래 부사와 전성 부사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수식언으로 분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최현배는 “어찌씨(부사)는 풀이씨(용언)의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가 어떠하게(어찌) 드러남을 보이는 씨를 이름이니 ‘어떠하게’(어찌) 하(되)느냐? 의 물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대답하는 말에 해당하는 씨이니라”¹¹⁾와 같이 부사를 정의했으며, 허웅은 “주로 그 다음에 오는 풀이말의 뜻을 꾸미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¹²⁾라고 부사를 정의하였다.

부사를 분류함에 있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김민수, 이기문은 본래부사, 전성부사, 첩용부사로 분류하였고¹³⁾, 심의린, 이완웅은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이송녕은 본래부사와 전성부사, 직접부사와 간접부사로 분류하였다.¹⁴⁾

부사는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뉜다. 본래부사란 국어의 생성 당시부터 원래 부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의성어, 의태어도 본래부사인데 같은 말이 거듭되었을 때 특히 첩용부사라 이른다.

전성부사는 어근이나 어간에 여러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로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경우

11)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pp. 588~590.

12)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출판사.

13) 이기문·김민수(1968) , 표준중등문법론, 어문각

14)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I 품사, 역락, pp.313~314.

- ① 형용사어근+이, 히(깨끗이, 가만히)
- ② 형용사어근+고(결단코, 결코)
- ③ 명사어체+로(대체로, 별로)

■ 주로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경우

- ① 형용사에서 전성부사 : 형용사어간(어근)+이, 히
- ② 동사에서 전성부사 : 동사어간(어근)+이, 히
- ③ 명사에서 전성부사
 - 이, 히 접미사 첨가
 - 애 접미사 첨가
 - 에 접미사 첨가
 - -로가 첨가된 것
 - -소가 첨가된 것
 - 복합형(여기 복합형은 명사와 용언의 부사형이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

■ 옛말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경우

- ‘ㄹ장’이 첨가
- ‘다비’ ‘다희’ 첨가
- ‘조’ ‘초’ 첨가
- ‘만’ 첨가
- ‘도이’첨가
- ‘마다’ 첨가
- ‘드록’ ‘도록’ 첨가¹⁵⁾ 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실제 전성부사나 본래부사나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애매한 것이 많

15) 김영태, “국어전성부사고”, 중대논문집 3집, pp.41~88.

다. 그 예로 유창돈은 ‘그리, 이리, 저리, 아므리, 어드리, 스스리’ 등을 명사에 ‘-리’ 접미사를 붙인 전성부사¹⁶⁾로 다루고 있지만 현대국어의 입장에서는 본래 부사로 봐야 할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현배는 부사를 풀이씨의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가 어떠하게(어찌) 드러남을 보이는 씨를 이른다¹⁷⁾고 했고, 이 때 풀이씨를 꾸미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순전한 어찌씨나 아주 어찌씨로 익어 버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순전한 어찌씨인 것

- 그 사람이 매우 기뻐하네.
- 가을비가 우수수 오는데
-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위생법이오.
- 먼저 가나, 나중 가나, 끝장은 다 마찬가지로.
-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요.

② 역시 어찌씨인 것

- 그 사람이 내일 오겠답니다.
- 어제 오신 손님이 오늘 가신단 말씀은 너무 충충한 말씀이오.
- 저도 그저께 거기 간 일이 있습니다.
- 너도 잠깐 가 보려니?

③ 역시 어찌씨인 것

- 나도 그 때에 비로소 그 말을 듣고 놀랐다.
- 나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오.

16) 유창돈(1980), 『이조국어사연구』, 이우출판사, pp.381~391.

17) 최현배, 앞의 책, pp. 588~590.

- 이것은 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소.
-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오.

④ 역시 어찌씨인 것

- 그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 우리 같이 놀러 갑세다.

여기서는 편의상 최현배의 정의에 따라 순전한 어찌씨, 역시 어찌씨로 구분한 ①~④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본래부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국어 부사의 분류

부사는 품사의 일종으로서 항상 용언 또는 용언형 혹은 다른 부사를 꾸미는 위치에 쓰이는 단어이며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정되는 용언이 가지는 뜻을 더 명확히 밝히면서 그 용언에 지배된다. 부사는 그 한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간(이제, 가끔), 처소(저리, 이리), 상태(잘, 빨리), 정도(매우, 너무), 화식(꼭, 만일)의 부사 등으로 나누고, 학자에 따라서는 접속부사를 설정하여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면”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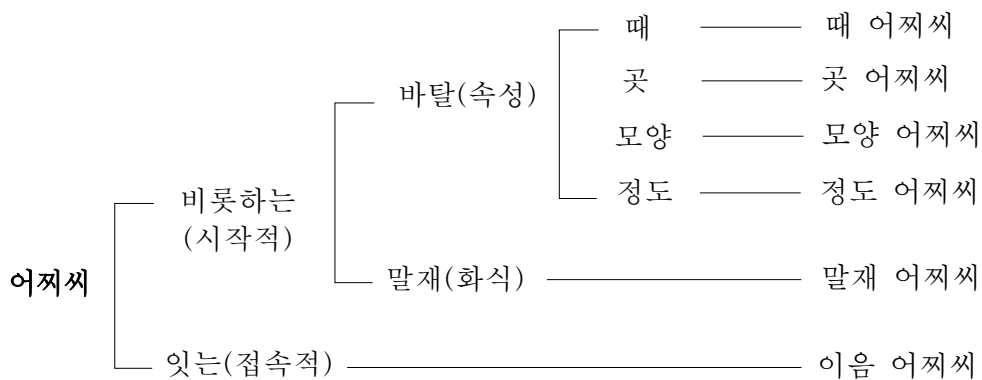
김형규는 부사를 시간부사, 처소부사, 상태부사, 정도부사로 분류하고, 접속부사는 접속사로 처리하였다.¹⁸⁾

김민수는 부사를 상태, 정도, 수량, 지시, 처소, 시간, 양태 등으로 분류하였다.¹⁹⁾

18) 김형규(1972), 국어학개론, 일조각, pp.170~171.

19) 김민수(1974), 국어문법론, 일조각, p.154.

최현배는 ‘우리말본’에서 부사를 그 뜻으로 보아 때 어찌씨(시간부사), 곳 어찌씨(처소부사), 모양 어찌씨(상태부사), 정도 어찌씨(정도부사), 말재 어찌씨(화식부사), 이음 어찌씨(접속부사)의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현배의 분류에 적용시켜 고찰하기로 한다.²⁰⁾



가. 때 어찌씨(時間副詞)

그 일이 드러남을 때로써 꾸미는 어찌씨로서,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의 네 가지가 있다.

(1) 때의 점을 보이는 것

- 지난적 : 일찍, 이미, 하마, 벌써, 어제, 그러께, 그저께
- 이적: 이제, 인제, 방금, 금방, 오늘
- 올 적: 내일, 다음, 차차, 훗날

²⁰⁾ 최현배, 앞의 책, pp. 594~604.

(2) 때의 길이(동안)를 보이는 것

늘, 항상, 잠시, 잠깐, 오래, 곧, 얼핏, 영구히, 영영

(3)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 앞선 때: 먼저, 일찍(早)
- 같은 때: 같이, 함께, 한꺼번에
- 뒤선 때: 나중, 다음

(4) 때의 빈수를 보이는 것

가끔, 매일, 매번, 매양, 자주, 비로소, 처음, 아직, 드디어, 번번이

나. 곳 어찌씨(處所副詞)

곳, 쪽, 뜨기에 관한 어찌씨로서 보기는 다음과 같다

- 곳: 여기, 저기, 거기, 곳곳이, 집집이
- 쪽(방향): 이리, 저리, 그리
- 뜨기(거리): 멀리, 가까이

다. 모양 어찌씨(狀態副詞)

그 뒤의 풀이씨의 속(내용)이 되는 일의 드러나는 모양을 꾸미는 어찌씨로서, 이에는 바로 그 내용을 보이는 것과 건너로(간접으로) 그 형식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으며, 또 바로에는 다시 속모양(방법)과 겉모양(외모)의 가름이 있으며, 또 겉모양에는 다시 일의 겉꼴과 몬(물건)의 겉꼴의 두 가지가 있

다.

(1) 바로 모양 어찌씨

(가) 속모양 : 잘못(나쁘게), 각종에, 급작이, 천천히, 빨리, 삼가, 가만히

그 외 한자의 음 뒤에 ‘히’를 더한 말

- 괴이히, 기이히, 명백히, 특히, 심히, 편히, 태연히 등등

(나) 겉모양

• 일의 겉꼴-움직임의 모양(동태)

텅텅-탕탕, 똑덕똑덕-똑닥똑닥, 찢겨찢겨-찢각찢각, 번적번적-반작반작, 덜렁덜렁-달랑달랑, 출렁출렁-출랑출랑, 쿵덩쿵덩-콩당콩당

• 문의 겉꼴-문의 모양(물태)

울퉁불퉁-올퉁불퉁, 푸름푸름-포름포름, 어름어름-아름아름, 뻥질뻥질-뻥질뻥질, 꺼칠꺼칠-까칠까칠, 불긋불긋-불긋불긋

(2) 건너로 모양 어찌씨

이리, 그리, 저리, 어찌, 아무리

라. 정도 어찌씨(程度副詞)

바탈(속성)의 드러나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에는 그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1)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 어찌씨

- 매우, 훨씬, 꽤, 끔찍이
- 대단히, 심히, 극히, 지극히, 하고
- 너무, 하도, 가장, 자못
- 영, 아주, 전혀, 꽤

(2)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정도 어찌씨

- 조금, 좀, 약간, 거의(거진)

이것들은 다 제 스스로는 무슨 속성을 바로 드러내는 일이 없고 다른 속성의 나타나는 정도의 어떻게 됨을 보이는 것인즉, 모양 어찌씨에 견주면 제 2차적이라 할 만하다.

마. 말재 어찌씨(話式副詞 또는 陳述副詞)

말하는 이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이니, 그 풀이말의 진술 방법을 꾸미어서 그 풀이말의 나타남에 따라 일정한 재(식, 방식, 양식)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1) 단정을 요구하는 어찌씨

- 세계 하는 것(강조적, 역설적 부사)
과연, 과시, 딱은, 진실로, 실로, 마땅히, 모름지기, 물론, 무론, 의례히, 의례로, 확실히, 정말, 참말, 응당, 정
- 틀림없다는 것(단정적 또는 필연적 부사)
단연코,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 비기는 것(비교적 부사)
마치, 천성, 천연, 똑
- 지우는 것(부정부사)
결코, 조금도, 털끝만큼도

(2)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어찌씨

- 풀이말에 의혹, 질문, 반어 등을 요구하는 것 : 왜, 어찌, 설마, 하물며
- 풀이말에 추측의 말을 요구하는 것 : 아마, 글썄
- 풀이말에 가설적 조건을 보이는 것
 - 만약, 만일
 - 설령, 설혹, 설사, 가사(假使), 가령
 - 비록, 아무리, 암만

(3) 바람을 보이는 어찌씨

- 시킴꼴(명령형)
 - 제발 비만 오지 말게 하여 주소서.
 - 아무쪼록 공부를 잘 하여라.
 -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 매는꼴(가정적구속형)
 - 제발 비만 오면
 - 아무쪼록 공부를 잘 하면
 - 부디 안녕히 계실 것 같으면 ……

바. 이음 어찌씨(接續副詞)

앞에 간 말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어찌씨로서, 앞뒤 말을 잇는 것과 월의 첫머리에서 그 앞의 월의 뜻을 이어서 다음의 월을 일으키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1) 앞뒤 말을 잇는 것(꼴로 잇는 것)

및, 또는, 곧

(2) 월의 첫머리에서 그 앞의 월의 뜻을 이어서 다음의 월을 일으키는 것(뜻으로 잇는 것)

- 나열 : 또, 그뿐아니라, 더구나, 하물며
- 구속
 - 이유와 원인 : 그러(하)니, 그러(하)매, 그러(하)므로, 그러(하)니즉, 한즉, 그러(하)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따라
 - 조건 : 그러(하)면, 그러하거든, 그렇거든, 그래야만
- 불구속 : 그러하지마는, 그렇지마는, 하지마는, 하나, 하나마, 그러(하)나, 그러(하)되, 하되, 그러할지라도, 그럴지라도

3. 제주 방언 부사 용례

제주 방언 자료를 조사하여 추출한 바를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정리하고, 제주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 언중들에 의해 쓰이는 말 중 필자가 직접 채록한 부사를 포함시켜 그 용례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주 방언 부사 용례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실없이, 철(분수)없이 | 거령청이(거령생이) | 철딱산이 어시 | ▶거령청이(철딱산이 어시) <u>눅뜨고</u> 있저. (철없이 날뛰고 있다.) |
| 거꾸로(거슬러) | 거스로(진행방향) | 느뵤사(위치) | ▶ <u>거스로</u> 가든 질 잊어부러. (거꾸로 가면 길 잃어버린다.) |
| 얼른(빨리), 서둘러 | 거쑤, 거쑤 | 확-, 거쑤 | ▶ <u>몽캐지</u> 말앙 <u>거쑤</u> 해라. (느릿느릿하지 말고 얼른 해라.) |
| 거의 | 거진, 거자, 건쑤 | 건쑤 | ▶일이 <u>거자</u> 다 끝나감저. (일이 거의 다 끝나간다) |
| 그러거든 | 게거든, 게건(경) | 게걸랑, 게거들랑 | ▶ <u>게거든</u> 일 다 <u>므청</u> 오라. (그러거든 일 다 끝내고 오라.) |
| 그리고저러고 | 게고제고 | 경허고정허고 | ▶ <u>게고제고</u> 잘 먹엄저. (그리고저러고 잘 먹는다.) |
| 그러나저러나 | 게나제나 | 경허나정허나 | ▶ <u>게나저나</u> 이 일을 어떻게 하코 (그러나저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
| 그러니, 그러니까 | 게난, 게나네 | 경허난 | ▶ <u>게난</u> 그 다음은 어떻게 <u>헨</u> 젠?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할려고 하니?) |
| 그러다가 | 게당 | 경허당 | ▶ <u>게당</u> 늦으키어. (그러다가 늦겠다.) |
| 설마, 아무리한들 | 게무로, 겐들 | 게무로사 | ▶ <u>게무로</u> 그런 일이 <u>츨말</u> 이시카?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
| 그러기에, 그러므로 | 게메 | 게난, 경허난 | ▶ <u>게메</u> 경 <u>헨</u> 영은 안 <u>뉘</u> 주.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
| 그러면 | 게민 | 경허민 | ▶ <u>게민</u> 후제 따시 만나주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 |
| 그래도 | 게도 | 경해도, 경허여도 | ▶ <u>게도</u> 열심히 노력해야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
| 그런들, 그래도 | 게므로, 게므로 | 경헌들, 경허여도 | ▶ <u>게므로</u> 어떻게 <u>헨</u> 여제? (그런들 어떻게 하리?)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쉬지 않고 자꾸 | 고들베, 고들베 | 좇게, 좇아지게 | ▶ <u>고들베</u> 귀찮게 굴엄저. (자꾸 귀찮게 군다.) |
| 끝이, 있는그대로 | 고제, 고자, 고저 | 고지 곧대로 | ▶ <u>걸 고제</u> 안 들엄저. (그것을 끝이(있는 그대로) 안 듣는다.) |
| 곧게 | 곧작, 과작 | ㄱ작히게 | ▶ <u>흙피</u> 대가리광 갈기 <u>과작</u> 상 들어오는다. (함께 대가리와 갈기가 곧작 서서 들어오는데.) |
| 곧고루 | 골로로, 골호로 | 골로로 | ▶ <u>골로로</u> 뿌리라. (곧고루 뿌려라.) |
| 곧작, 곧바로 | 구작, 구짱 | 구작 | ▶이 길로 <u>구작</u> 갑서. (이 길로 곧장 가십시오.) |
| 구태어 | 구티어 | 역불로 | ▶ <u>구티어</u> 혼덴흔면 말리진 안으켜 (구태어 한다면 말리진 않겠다.) |
| 공연스레 | 퀘약시 | 건-달, 쓸떼기어시 | ▶ <u>퀘약시</u> 잘못했저. (공연스레 잘못했다.) |
| 고이 | 퀘양, 고양 | ㄱ양 | ▶ <u>퀘양</u> 간직혀. (고이 간직해.) |
| 그다지 | 그닷, 그땃 | | ▶ <u>그닷</u> 멀진 안혀. (그다지 멀지는 않아.) |
| 거기(저기) | 그되 | 그디 | ▶ <u>그되</u> 가 봅주. (거기 가 봅시다.) |
| 그리, 그쪽으로 | 그레 | 저쪽으로 | ▶ <u>그레</u> 가게. (그리 가자.) |
| 거저, 공으로 | 그자 | 공결로 | ▶ <u>그자</u> 얻는 건 문제가 잇주. (거저 얻는 건 문제가 있다.) |
| 그저 | 그자, 괴자 | | ▶ <u>괴자</u> 열심히 하여사주. (그저 열심히 해야지.) |
| 그제야 | 그제사 | 그때사 | ▶ <u>그제사</u> 알아차련 (그제야 알아차렸다.) |
| 이제야 | 이제사 | 이때사 |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기어이, 기필코 | 기여이 | | ▶ <u>기여이</u> 경 흘래. (기어이 그럴래.) |
| 그렇게, 그리 | 기영 | 경- | ▶ <u>기영</u> 곤당봐도 듣질 안혀. (그렇게 말해보아도 듣지를 않는다.) |
| 그러잖아도 | 기영아네도 | 경허지아녀도 | ▶ <u>기영아네도</u> 가젠 혀염서. (그러잖아도 가려고 한다.) |
| 그럭저럭 | 기영저영 | 경정 | ▶ <u>기영저영</u> 살다보민 (그럭저럭 살다보면) |
| 같이 | ㄱ띠, ㄱ티 | ㄱ치 | ▶우리 <u>ㄱ티</u> 가게. (우리 같이 가자.) |
| 가로 | ㄱ로 | ㄱ로 | ▶세로 말고 <u>ㄱ로</u> 찍어. (세로로 말고 가로로 찍어) |
| 여태까지, 지금까지 | ㄱ자, ㄱ제, ㄱ재 | 이제낭 | ▶ <u>ㄱ자</u> 안 가고 뭐 햄서? (여태까지 안 가고 뭐 하나?) |
| 가장 | ㄱ장 | 질 | ▶이 꽃이 <u>ㄱ장</u> 곱들락하다. (이 꽃이 가장 곱다.) |
| 함께, 같이 | ㄱ짜, ㄱ치, ㄱ티 | 흔디 | ▶ <u>흔차</u> 가지 말곡 <u>ㄱ짜</u> 갑주.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
| 거푸 | 굴팍, 굴포 | | ▶ <u>굴팍</u> 연기 뿜엄저. (거푸 연기를 뿜어댄다.) |
| 이제 금방 | 꺄 | 꺄, 이제 꺄 | ▶저술이 <u>꺄</u> 지났주. (겨울이 이제 꺄 지나갔다.) |
| 아까, 조금전, 방금 | 꺄사, 꺄세, 꺄췌 | ㄱ췌 | ▶ <u>꺄사</u> 뛰어가는 걸 봤어. (아까 뛰어가는 걸 봤다.) |
| 꽤, 어지간히 | 깨 | | ▶짐이 <u>깨</u> 베다 (짐이 꽤 무겁다.) |
| 끝끝내 | 꺄꺄내 | 징헹게 | ▶ <u>꺄꺄내</u> 이기고 말았주. (끝끝내 이기고 말았다.) |
| 결국 | 꺄꺄들이 | | ▶ <u>꺄꺄들이</u> 해내고 말았주. (결국 해내고 말았다.)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까딱, 자칫 | 꺄딱 | 꺄딱 | ▶ <u>꺄딱</u> 잘못하당 푸더질지 모르켜. (까딱 잘못하다가는 넘어질지 몰라.) |
| 내내 | 내낭 | 쭙, 쭙장 | ▶ 저슬 <u>내낭</u> 춥드라. (겨울 내내 춥더라.) |
| 너무 | 너미 | 너미 | ▶ <u>너미</u> 과닥질 심하게 말라. (너무 장난 심하게 하지 말라.) |
| 늘 | 느랑, 니항, 니랑 | 쭙, 쭙장 | ▶ <u>느랑</u> 잘 술피라. (늘 잘 돌봐 주라.) |
| 기필코, 기어이 | 느시 | 아맹도 못허연 | ▶ <u>느시</u> 안 간다는 걸 보냈주. (기어이 안 간다는 걸 보냈다.) |
| 다만 | 다른, 달른 | 다른 | ▶ <u>다른</u> 메 푼이라도 벌엄사주.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
| 다시, 또 | 따시, 또시 | | ▶ <u>따시</u> 만나게. (다시 만나자.) |
| 대강, 짐작으로 | 대걸룽 | 어영부영 | ▶ <u>대걸룽</u> 호영은 안 돼주. (대강 해석은 안 된다.) |
| 도리어 | 도리어 | | ▶ <u>도리어</u> 날 내무렵저. (도리어 날 나무라는군.) |
| 갑자기, 홀연히 | 두령청이 | 두령청이 | ▶ <u>두령청이</u> 와서라. (갑자기 왔더라.) |
| 덜, 기준보다 적게 | 두루 | | ▶ <u>두루</u> 아팠저게. (덜 아팠다.) |
| 몹시, 매우 | 웨게, 웨우, 되우 | 막- | ▶ 일이 <u>웨게</u> 버치다. (일이 몹시 힘들다.) |
| 가득 | 드끈 | 무룩, ㄹ득 | ▶ <u>드끈</u> 싸 쫓어. (가득 싸 주었다.) |
| 계속, 쉬지 않고 | 들구 | 고돌베, 디렛따 | ▶ <u>옛날</u> 이사 술각볼 쌍 이런 디 결영 내부리민 <u>들구</u> 그슬주키. (옛날이야 술볼 쉰서 이런 곳에 내버리면 계속 그을지.) |
| 마구 | 들읍더, 들립다 | 들입다 | ▶ <u>들읍더</u> 쑤셔넣지만 말고 (마구 담아놓지만 말고)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꼭, 틀림없이 | 똥 | 죽거시, 축거시 | ▶ <u>똥</u> 그 사람이라. (틀림없이 그 사람이야.) |
| 따로, 별도로 | 뜨로, 트로 | 뜨로 | ▶부모와 자식이 <u>뜨로</u> 산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산다.) |
| 모두 | 문짜, 문, 멘딱, | 문딱, 문짜 | ▶ <u>즈냥ㅎ명</u> 모은 재산 <u>문짜</u> 털어그네 (절약하여 모은 재산 모두 털어서) |
| 먼저(先) | 문저, 모네, 문침 | 문녀 | ▶ <u>느 문저</u> 가라게. (너 먼저 가라.) |
| 왜 | 무사, 웨 | | ▶ <u>무사</u> 경 <u>ㅎ염</u> 시나? (왜 그러는테?) |
| 제한없이, 무한정 | 무장 | 막- | ▶ <u>무장</u> 먹어도 <u>웨쿠</u> 가? (무한정 먹어도 되겠어요?) |
| 깨끗이 모두 | 무짜, 문짜 | 크쿨허게 문짜 | ▶ <u>무짜</u> 먹엇저. (모조리 먹었다.) |
| 문득 | 문뜩 | 두렁청이 | ▶ <u>문뜩</u> 생각나민 (문득 생각나면) |
| 물끄러미 | 물꾸루미 | 올러시 | ▶ <u>물꾸루미</u> 보암저. (물끄러미 보고 있네.) |
| 미리 | 미르세, 미룻 | 미르세, 미룻 | ▶ <u>미르세</u> 일을 준비해사주. (미리 일을 준비해야지.) |
| 물끄러미 | 밀꾸루시 | 올러시 | ▶ <u>밀꾸루시</u> <u>흔</u> 군데로만 보고 잇저. (물끄러미 한 곳으로만 보고 있다.) |
| 뻑뻑이 | 박삭, 북작 | 죇개 | ▶ <u>밧디</u> 검질이 <u>박삭</u> 낫저. (발에 김이 많이 났다.) |
| 털썩 | 벌락 | 발착 | ▶ <u>벌락</u> 주저앉안 <u>넛</u> 을 잃고 말앗주. (털썩 주저앉아서는 넛을 잃고 말았다.) |
| 바짝 | 븐짜 | 븐짜 | ▶ <u>븐짜</u> 부드라 (바짝 붙어라.) |
| 벌컥 | 볼치락 | 와들락 | ▶ <u>볼치락</u> 성만 내니 <u>므</u> 습다. (벌컥 성만 내고 있으니 무섭네.)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전혀 | 버짚, 번짚 | | ▶ <u>버짚</u> 아무것도 웃인 빈털터리.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
| 벌써 | 벌써 | | ▶ <u>벌써</u> 끝난 지 오래 되었주. (벌써 끝난 지 오래 되었다.) |
| 부리나케 | 부리나케 | 브지러니 | ▶ <u>부리나케</u> 들었주. (부리나케 달렸다.) |
| 빙그레 | 빙삭이 | 뱅사기 | ▶ <u>빙삭이</u> 웃어라. (빙그레 웃더라.) |
| 빨리 | 빨리, 재게 | 재게, 흔저 | ▶ <u>빨리</u> 들으라. (빨리 달려라.) |
| 세상없어도, 절대로 | 생실 | 아맹허여도, 생-전 | ▶ <u>생실</u> 니 어신 못 살키어. (절대로 너 없이는 못 살겠다.) |
| 손수 | 손소 | 이녁대로, 이녁냥으로 | ▶아흔 된 어르신이 <u>손소</u> 밥 지영 먹엄서라. (아흔 된 어르신이 손수 밥 지어 드신다.) |
| 실컷 | 실콧, 실큰 | 푸지게 | ▶ <u>실콧</u> 먹으라게. (실컷 먹어라.) |
| 사뭇 | 스뭇 | 스뭇 | ▶ <u>스뭇</u> 떨럼저. (사뭇 떨린다.) |
| 살짝 | 술짜, 술째기 | 꺄양 | ▶ <u>술째기</u> 읍서예. (살짝 오세요.) |
| 아니 | 아이, 양이 | | ▶니가 <u>아이</u> 가문 섭섭헝 혼다. (네가 안 가면 섭섭해서 한다.) |
| 아마 | 아매 | 겘새, 굴새 | ▶ <u>아매</u> 경 흘지도 모르켜. (아마 그럴지도 몰라.) |
| 아무래도 | 아며도 | 아맹허여도 | ▶ <u>아며도</u> 이유가 이신거 담따. (아무래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
| 아무리 | 아모리, 암만 | 아-명(허여도) | ▶ <u>아모리</u> 춤아도 춤는데도 한계가 잇주. (아무리 참는다 해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아예, 애초에 | 아시예 | 츄담에, 츄담부터 | ▶ <u>아시예</u> 경 흘 생각은 말라. (아예 그럴 생각은 말라.) |
| 아올러, 마저 | 아올라 | | ▶니 <u>아올라</u> 날 배신헐타? (너 마저 날 배신할래?) |
| 아닌게 아니라 | 아이카 | 츄말로 | ▶ <u>아이카</u> 그 집에 도둑이 들엇젠 헛명? (아닌게 아니라 그 집에 도둑이 들엇다고 하면서?) |
| 아무튼, 하여튼 | 아칸 | 어평허든 | ▶ <u>아칸</u> 가 보도록 노력허키어. (하여튼 가 보도록 노력하겠다.) |
| 언제 | 어느제, 어느제 | | ▶ <u>어느제</u> 떠날 생각이고? (언제 떠날 생각이니?) |
| 어디 | 어디 | | ▶ <u>어디</u> 감시니? (어디 가느냐?) |
| 억지로 | 억질로, 우김으로 | 우경으네 | ▶ <u>억질로</u> 잘 헛제일랑 말라. (억지로 잘 하려고는 말아라.) |
| 여기 | 여기, 이디 | 이디 | ▶ <u>여기</u> 앉읍서. (여기 앉으세요.) |
| 여북 | 여북 | | ▶ <u>여북</u> 굵굽헛민 경허여시카? (여북 굵굽하면 그렇게 했을까?) |
| 틈만나면,틈나는대로 | 여부룩스부룩 | 트멍나면 | ▶ <u>여부룩스부룩</u> 일을 잘 챙겨져. (틈만 나면 일을 잘 챙기는구나.) |
| 일부러 | 역부로, 역불 | 역불로 | ▶ <u>역부로</u> 널 보젠 와신디. (일부러 너 보려고 왔는데.) |
| 의도적으로 | | 역불로 | ▶ <u>역불로</u> 두두러부릿져. (의도적으로 때렸다) |
| 전혀 | 영 | | ▶ <u>영</u> 터나질 것 같진 안헛다. (전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
| 보통으로, 언제나 | 예점에 | 예점에 | ▶ <u>예점에</u> 성만 내니 이 노릇을 어평허리. (언제나 성만 내니 이 노릇을 어떡하리)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본디 그대로 | 오고생이 | 오꼬생이 | ▶ <u>오고생이</u> 일어나그네 가드라. (그대로 일어나서는 가더라.) |
| 전부, 그만, 완전히 | 오꼳 | 몬딱 | ▶재산을 <u>오꼳</u> 몬 날려버렸주. (재산을 그만 모두 날려버렸다.) |
| 오래(久) | 오레 | 질그랭이 | ▶ <u>오레</u> 심지는 안으켜. (오래 잡지는 않겠다) |
| 오죽, 여간, 얼마나 | 오죽 | | ▶ <u>오죽</u> 아프몬 경흐쿠냐? (오죽 아프면 그렇겠냐?) |
| 통째, 온통 그대로 | 온차 | 은채로 | ▶ <u>온차</u> 먹어도 웨여. (통째로 먹어도 된다.) |
| 우두커니 | 울럿이 | 울럿이 | ▶ <u>울럿이</u> 이서라. (우두커니 있더라) |
| 온통 | 웬통 | 몬딱 | ▶ <u>웬통</u> 유채꽃으로 수놓아 잇저. (온통 유채꽃으로 수놓아 있다.) |
| 여기 | 요기, 요되 | 이디 | ▶ <u>요기</u> 앓아그네 쉬멍 갑주. (여기 앉아서 쉬어서 갑시다.) |
| 워낙 | 원간, 원채, 워년 | 원채 | ▶ <u>원채</u> 잘 먹기로 소문난 아이라서. (워낙 잘 먹기로 소문난 아이라서.) |
| 있다가, 이따금 | 이땅, 이따그네 | 이따그네 | ▶ <u>이땅</u> 보멍 가주. (있다가 보면서 가지.) |
| 이리로, 이리 | 이레 | 이쪽으로 | ▶ <u>이레</u> 오라게. (이리로 오너라) |
| 일찍이 | 일찌갱이 | 일찌갱이 | ▶ <u>일찌갱이</u> 출려산다. (일찍 준비해야한다.) |
| 자꾸 | 자꼬 | 즈주 | ▶ <u>자꼬</u> 울지말라게. (자꾸 울지 말아라.) |
| 자나깨나 | 자나깨나, 예점에 | 불춘즈루어시 | ▶ <u>자나깨나</u> 즈식 걱정. (언제나 자식 걱정)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줄곧 계속해서 | 장흐레로 | 쪽-장 | ▶ 장마철이라 비가 장흐레로 왔지.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 |
| 저기 | 저디, 저괴 | 저디 | ▶ 저디 가는 사람 보라. (저기 가는 사람 보라.) |
| 저쪽으로 | 저레 | 저짜이, 저쪽으로 | ▶ 저레 비키라. (저쪽으로 비켜라.) |
| 제법 | 제벱 | 흐썰 | ▶ 제벱 잘 험저. (제법 잘 하네.) |
| 겨우 | 제우, 제위 | 재우사 | ▶ 우는 애기 제우 달랬저. (우는 애기 겨우 달렸다.) |
| 제일, 가장 | 질(젤) | 질로 | ▶ 시상에서 질 조은 게 머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나?) |
| 조금 | 조곰, 조끔, 조끔 | 흐끔 | ▶ 나헌티는 조끔 쥐도 된다. (나에게는 조금만 주어도 된다.) |
| 조금씩 | 족족, 작작 | 흐썰씩 | ▶ 제말 족족 먹어시주 영 흐당 먹을거 바다나켜. (제말 조금씩 먹어야지 이리다간 먹을 거 바다나겠다.) |
| 올바르게 | 졸바로 | 졸바로 | ▶ 졸바로 행동흐여사주. (올바르게 행동해야지.) |
| 좀처럼 | 좀츠로, 좀체로 | 좀채 | ▶ 좀츠로 일이 안 풀렘저. (좀처럼 일이 안 풀리네.) |
| 줄곧 | 죽장 | 죽짱 | ▶ 죽장 이 일을 해 왔지. (줄곧 이 일을 해 왔다.) |
| 모두 다 | 췌다, 죄다 | 딤딱 | ▶ 이서난 일은 췌다 ㄱ라보라. (있었던 일은 모두 다 말해보라.) |
| 즉시, 얼른 | 직시 | 확- | ▶ 직시 가 보키어. (즉시 가 보겠다.) |
| 지그시 | 질그시 | | ▶ 질그시 눈 곱양 이서라.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더라.)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계속, 오래도록 | 지리 | 질기게, 질리게 | ▶이번 장미는 <u>지리</u> 감져. (이번 장미는 오래도록 가네.) |
| 따로따로, 각자따로 | 질로지씩 | 뜨로뜨로 | ▶자식은 <u>질로지씩</u> 사는 거여. (자식은 각자 따로 사는 거다.) |
| 진작 | 진직 | 미럿이 | ▶ <u>진직</u> 알아봤져. (진작에 알아보았다.) |
| 자못 | 즈못 | | ▶ <u>즈못</u> 궁금혀. (자못 궁금하다.) |
| 자주 | 즈주 | 줏게 | ▶왕래가 <u>즈주</u> 이서야 정이 부튼다. (왕래가 자주 있어야 정이 붙는다.) |
| 잘끈, 잘 | 줄끈 | | ▶끈을 <u>줄끈</u> 무끄라. (끈을 잘끈 묶어라.) |
| 처음 | 처엄, 체얌 | 츄담 | ▶이런 일은 <u>체얌</u> 보는 일이여.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
| 차라리 | 츄라리, 출하리 | 츄담부터 | ▶ <u>츄라리</u> 가지 말 걸. (차라리 가지 말 것을.) |
| 차마 | 츄마 | 계무로사 | ▶ <u>츄마</u> 그털 수야 엇주. (차마 그털 수야 없다.) |
| 차차, 조금씩 | 츄츄 | 츄근츄근 | ▶ <u>츄츄</u> 트나질 테주. (차차 달라질 테지.) |
| 참 | 츄 | 진짜이 | ▶ <u>츄</u> 딱한 노릇이여. (참 딱한 노릇이다.) |
| 깨끗이 | 크컬, 크쿨 | 크쿨허게 | ▶집을 <u>크쿨허게</u> 치우라. (집을 깨끗이 치워라.) |
| 전혀 | 퍼찍, 편찍 | 번찍 | ▶ <u>퍼찍</u> 아무것도 웃어노난.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
| 태연히 | 펜지롱이 | 뻬지롱이 | ▶사람을 <u>펜지롱이</u> 쳐다뵈져. (사람을 태연히 쳐다본다.)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그리 변변치 않게 | 하 | | ▶ <u>하</u> 큰 거 (그리 크지 아니한 거) |
| 여기저기 | 하간되, 하근되 | 이디저디 | ▶ <u>하간되</u> 땡겨봐도 (여기저기 다녀 보아도) |
| ① 너무나 많이 | 하도 | 너미나 하영 | ▶ ① <u>하도</u> 까부난 욱도 좀 해사주. (너무나 많이 까부니까 욱도 좀 해야지.) |
| ② 아주 | 하도 | ㅎ도 | ② <u>지들컷도 하도</u> 귀ㅎ영 (땡감도 아주 귀해서) |
| ③ 많이 | 하영 | ㅎ영 | ③ <u>하영</u> 먹읍서양. (많이 드십시오.) |
| 거의 다, 거의 | 해 | 건줍 다 | ▶ <u>짐 정리</u> 가 <u>해</u> 돼 감저. (짐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간다.) |
| 혼자 | 혼차, 혼채 | 혼채 | ▶ <u>혼차</u> 만 잘 먹고 잘 살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
| 훨씬 | 활썬, 흘썬 | | ▶ <u>그 옷</u> 이 <u>활썬</u> 더 잘 어울림저. (그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
| 계속 | 홀터 | | ▶ <u>바보</u> 같이 <u>홀터</u> 옷기만 <u>ㅎ여</u> 라. (바보같이 계속 옷기만 하더라.) |
| 아주 조금 | ㅎ끔, ㅎ쌀 | ㅎ끔 | ▶ <u>ㅎ끔</u> 주라. (조금 주라.) |
| 부디, 바라건대 | ㅎ다, 하다 | | ▶ <u>ㅎ다</u> 날 미워허질랑 맙서. (바라건대 날 미워하지 마세요.) |
| 하마터면 | ㅎ마떼민, ㅎ마트민 | ㅎ마테민, ㅎ마 | ▶ <u>ㅎ마떼민</u> 잊어부릴뻔 했주.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 했다.) |
| 하물며 | ㅎ물며 | | ▶ <u>ㅎ물며</u> 사람인디 은혜를 모르카. (하물며 사람인데 은혜를 모를 리가.) |
| 모조리 | ㅎ그뚜르, ㅎ끗드로 | 뎨딱합쳐 | ▶ 기자 <u>ㅎ그뚜르</u> 자바 두드려 노니 (그저 구분없이 붙잡아 두들겨놓으니) |

| 類意 표준어 | 사전수록 방언부사 | 채록한 방언부사 | 용례(표준어 해석) |
|-----------|-----------|----------|--|
| 어서 빨리 | 흔저 | 흔저, 재개 | ▶ <u>흔저</u> 읍서. (어서 오십시오.) |
| ① 한꺼번에 같이 | 흙끼, 흙치 | | ▶ ① 이번 참에 <u>흙치</u> 해야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해야지.) |
| ② 전혀 (부정) | 흙끼, 흙치 | 택도어시 | ② <u>흙치</u> 그 집에 갈 생각 엇저. (전혀 그 집에 갈 생각이 없다.) |
| 함부로 | 흙부로, 흙불로 | | ▶ <u>흙불로</u> 나서지 말라.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
| 항상(恒常) | 홍상 | 홍-상 | ▶ <u>홍상</u> 니 생각 한다. (항상 너 생각을 한다.) |

4.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앞에서 다룬 국어의 부사 분류 기준에 적용시켜 제주 방언의 본래부사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간부사

(1) 때의 점을 보이는 것

일찌거니(일찌갱이), 벌써, ㄹ사(ㄹ세, ㄹ쎌), 따시(또시), ㄹ자, 어느제

(2)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느랏(느향, 느랏), 오래, ㄹ, 내낭, 죽장, 장흐레로, 홍상, 예점에

(3)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몬저(모네, 몬침), 미르세(미룻), 진직, 혼디(ㄱ찌, ㄱ치), ㄱ티(ㄱ띠), 흙치, 직시, 이땅(이따그네, 이따가)

(4) 때의 변수를 보이는 것

즈주, 처엄(체얌), 굴팜, 그제사, 따시(또시), 들구, 홀터, 지리, 자꼬, 자나
께나, 고들베(고들배)

나. 처소부사

(1) 곳 : 저디(저기), 그디, 여디(이디), 하근디(하간디), 요디, 어디

(2) 쪽 : 이레, 그레, 저레 , 구짱(구작), 곧작(과작), ㄱ로

(3) 뜨기 : ㅂ작

여기서 ‘이레, 저레, 그레, 저디, 그디, 여디, 요디’ 등은 어형이 대명사와 같으나 독립해서 체언으로 쓰이면 대명사가 되고 다른 말을 한정하면 부사가 되는 특이한 형태이다.

다. 상태부사

(1) 바로 모양부사

(가) 속모양

ㄱ득, ㄱ딱, 거스로, 거쑈(거쑈, 걸른, 얼끗), 고제, 궤양(고양), 들읍더(들립다), 물꾸루미, 문뜩, 부리나게, 손소, 올럿이, 질그시, 드끈, 골로로(골호로), 빙삭이, 혼차(혼체), 궤약시, ㅋ쿨(ㅋ컬), 오끗, 온차, 밀꾸루시, 무장, 츄츄,

술째기(술짝), 줄끈, 줄바로, 툄치락, 편짜, 혼저

(나) 곁모양

거렁청이(거렁생이), 두렁청이(두렁청이, 두렁성이), 오고생이, 펜지롱이, 벌락, 박삭, 여부록스부록(으보록스보록)

(2) 건너로(간접) 모양부사

뜨로(트로), 아모리(암만), 흙부로(흙불로), 기영, 가로각석(질로지씩), 하

라. 정도부사

(1)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부사

ㄱ장, 깨, 너피, 대걸룽, 다믄(달믄), 하도, 혼끗드로(혼긱드로, 혼그뚜르, 혼긱디로), 문딱(문짝), 질(젤), 즈뭇, 활썬(홀썬), 췌다, 해, 하영(만히), 제뻬, 뉘우(뉘게, 뉘우), 실큰(실긱), 족족

(2)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정도부사

제우(제위), 거진(거자, 건쭈), 두루, 오족, 조꿈(조끔, 조끔), 흐췌(흐끔), 족영

마. 화식부사(진술부사)

(1) 풀이말의 단정을 요구하는 부사

- 강조적인 것 : 여복, 억질로, 무짜
- 단정적, 필연적: 춤, 그자, 똑, 기여이, 느시, 꺾꺾내, 꺾꺾이, 웅통

- 비교적, 비유적: 도리어, 구티여, 그닷(그덜), 기영저영, 원간(원체)
- 부정적 : 영, 퍼썩(번썩), 아이(앙이), 흠치, 좀체로(좀츠로), 아시예, 쟁실

(2)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부사

- 의혹, 질문, 반어: 게무로, 무사(웨), 흐믈며, 역불로(역불), 깡딱
- 추측: 아매, 츠마, 아며도
- 가설적 조건: 아모리, 흐마트민(흐마테민, 흐마떼민, 흠마떼민, 흠마)

(3) 바람을 보이는 부사

- 츠라리(출하리), 흐다(하다)

바.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앞에 간 말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부사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하여 온 다섯 가지 부사(시간, 정도, 처소, 상태, 화식)는 다 앞의 말을 잇는 일이 없이 제 홀로 서서 그 뒤의 말을 꾸미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접속부사는 반드시 앞에 가는 말을 이어 받아서 제 구실을 하는 부사이니 이것이 다른 부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된다.

제주 방언 본래부사 중 접속부사의 예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게거든, 게고제고, 게나네(게난), 게당, 게메, 게민, 게도(게도), 게므로(게므로), 게나제나, 아이카, 야칸, 기영아네도

이상에서 제주 방언 중에서 본래부사의 갈래를 국어 부사의 분류(최현배의 분류: 시간, 처소, 정도, 상태, 화식, 접속 부사)에 의거하여 그 용례들을 고찰하

여 보았는데,

첫째, 시간부사는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의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처소부사는 곳, 쪽(방향), 뜨기(거리)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셋째, 상태부사는 바로모양부사와 건너로 모양부사로, 바로모양부사는 다시 속모양과 겉모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정도부사는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다섯째, 화식부사(진술부사)는 풀이말의 단정을 요구하는 부사,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부사, 바람을 보이는 부사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예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접속부사는 앞에 말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예를 제시하였다.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어휘 중에서 부사의 총 수효는 대략 1,129개이고, 그 중 본래부사는 대략 160개 정도이다. 이들 제주 방언 본래부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시간부사(32개), 처소부사(13개), 상태부사(43개), 정도부사(25개), 화식부사(35개), 접속부사(12개)의 용례들을 추출해 내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언중들에게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어휘들을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Ⅲ.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

한 문을 구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 서로 일정한 형태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요소 사이의 공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문법적으로는 거의 의무적인 일치를 요구하는 규칙이다. 이 모든 규칙은 성질상 호응(呼應) 또는 상응(相應)이라 한다.²¹⁾

부사는 용언을 수식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부사가 형용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동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또는 용언 공통으로 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하여 부사의 기능상의 특징을 살피려 한다.

이러한 호응관계가 부사와 용언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를 먼저 살피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우리말에서의 형용사와 동사의 다름은 그 뜻에 있다. 즉 서술력에서나 그 시제에서나 활용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그 뜻으로 보아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상태존재의 어떠함을 그리어 나타내며, 동사는 사람이나 자연물이나 정신,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는 시제와 활용에 있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동사에는 현재진행의 시제가 있지만, 형용사에는 현재진행형이 없다.

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현저한 것은 종지법에 있어서 동사에는 명령형과 청유형이 있겠지마는 형용사에는 이들이 없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다”, “없다”가 동사와 형용사 중 어느 쪽에 속하냐 하는 문제인데, 최현배는 이들을 형용사로 잡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있다”, “없다”, “계시다”를 형용사로 다루기로 한다.

21) 김민수(1974), 국어문법론, 일조각, p.297.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에 입각하여 이들이 제주 방언 본래부사와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겠다. 여섯 가지 부사 중 접속 부사를 제외한 다섯 가지 부사의 경우에 한해서 그 호응 관계를 살펴보고 부사의 기능상의 특징을 밝히려 한다.

1. 시간부사의 호응

국어의 시간부사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모두 시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동작과 상태는 시간성을 가지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작과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어의 시간부사는 공기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형태소, 다시 말하면 시제형태소와 공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의 시간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어휘의 의미자질을 나타내 보면 [__+과거시제], [__+현재시제], [__+미래시제] 등의 시제의 절대적 의미자질과 [__+순간], [__+지속]의 시간 지속의 상대적 의미자질과 아무런 시간적 제약을 가지지 않는 무시제 제한적 시간부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²²⁾ 대체로 과거시제의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는 어휘로는 ‘아직’과 ‘방금’ 등의 어휘가 있으며, 현재시제의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는 어휘로는 ‘요즘’과 ‘지금’ 등이 있으며, 미래시제의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는 어휘로는 ‘이따’와 ‘조만간’ 등이 있다. 순간적인 시간을 보여주는 어휘로는 ‘문득’과 ‘불현듯’ 등이 있으며, 시간의 지속을 보이는 어휘로는 ‘늘’과 ‘줄곧’ 등이 있다.²³⁾

22) 어떤 부사들은 시제의 의미자질만을 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부사들은 시간 지속의 상대성 의미자질만을 가진 경우도 있다. 어떤 시간부사들은 시제와 시간 지속의 두 가지 의미자질을 다 가진 경우도 있다.

23) 손남익(1999), “국어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 9집, 한국어학회, p.166.

이를 제주 방언 부사에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시제와 공기할 수 있는 부사
일찌거니(일찌깹이), 벌써, ㄹ사(ㄹ세, ㄹ썰), ㄹ자, 그제사
- 미래 시제와 공기할 수 있는 부사
이땅(이따그네, 이따가), 따시(또시), 어느제, ㄹ
- 현재 시제와 공기할 수 있는 부사
이제, ㄹ
- 시간의 지속을 보이는 부사
느랏(느향, 느랏), 오래, ㄹ, 내낭(늘이), 내낭(늘상), 죽장, 장흐레로, 흥상, 예점에, 들구, 홀터, 지리, 자꼬, 자나께나, 고들배(고들배), 즈주, 꿀팜
- 순간적인 시간을 보이는 부사
문뜩, 두렁청이

등으로 나뉘 볼 수 있겠다.

시간의 지속을 보이는 어휘들 중에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예로 ‘들구’, ‘홀터’, ‘지리’는 거의 비슷한 뜻을 보이면서도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고 분포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들구’는 ‘계속’의 의미를, ‘홀터’는 ‘계속, 쉬지 않고’의 의미를 나타내고 둘 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쓰이는 말이지만, ‘지리’는 ‘계속, 오래도록’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일부 지역(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에 한정되어 쓰이는 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죽장’이나 ‘장흐레로’라는 말도 거의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드러낸다. ‘죽장’은 ‘줄곧’의 의미를 나타내고, ‘장흐레로’는 ‘줄곧 계속해서’의 뜻으로 ‘죽장’에 비해 지속의 의미가 한층 더 강조된 느낌이 드는 말이다.

제주 방언 시간부사도 국어 시간 부사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시간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수식 기능을 겸한다. 제주 방언 시간부사의 호응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간부사+동사형

- 일찌거니 일어났저.(일찍 일어났다.)
- ㄹ자 안 가고 뭐 햄서? (아직도 안 가고 뭐 해?)
- 어느제 올티? (언제 올 거니?)
- 오레 되었주.(오래 되었다.)
- 장마철이라 비가 장흐레로 왓저.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
- 죽장 이 일을 해 왓저.(줄곧 이 일을 해 왔다.)
- 홍상 느 생각헌다.(항상 너 생각을 한다.)
- 예점예 성만 내니 이 노릇을 어떻허리.
(언제나 성만 내니 이 노릇을 어떻게하리.)
- 이번참에 흐치 해야주.(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해야지.)
- 이땅 보멍 가주.(이따가 보면서 가겠다.)
- 바보같이 홀터 웃기만 허드라.(바보같이 계속 웃기만 하더라.)
- 느 먼저 가라게.(너 먼저 가라.)
- 공부는 미르세 해뒤산다.(공부는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한다.)
- 직시 가 보키어.(즉시 가 보겠다.)
- 진직 알아봤저.(진작에 알아보았다.)
- 꼴판 연기 뿔엄저.(연거푸 연기를 뿔어댄다.)
- 그제사 알아차련.(그제야 알아차렸다.)
- 자꼬 보챤저.(자꾸 보챤다.)

- 자나깨나 조심해사주.(언제나 조심해야한다.)
- 고들베 늦엄저.(자꾸 늦는다.)
- 들구 먹엄저.(계속 먹는다.)
- 이번 장마는 지리 감저.(이번 장마는 오래도록 간다.)

나. 시간부사+ 동사, 형용사 공통형

① (ㄱ) 궂 와수다.(곧 왔습니다.)

(ㄴ) 그 사람 궂 이디 이선게마는(그 사람 방금 여기 있었는데)

② (ㄱ) 고썩 와수다.(방금 왔습니다.)

(ㄴ) 그 사람 고썩 이디 이선게마는(그 사람 아까 여기 있었는데)

①의 (ㄱ)은 “곧 왔습니다.”로, (ㄴ)은 “그 사람 곧/바로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로 읽을 수 있다. 즉 시간부사 ‘궂(곧)’은 후행하는 동작동사들이 일어나는 시점에 초점을 둔, 시간폭이 없는 ‘딱, 즉시’의 의미라면, ②의 ‘고썩(궂세, 궂싸)는 사건 발생시에서 발화시 현재까지의 어느 정도 시간의 양과 폭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발화시 현재에서 지난시에 완료된 동작, 상태 사이의 시간선상의 거리를 공간개념인 ‘사이’와 동일시하는 인식론적 과정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4)

위의 예를 통해 궂, 궂사(고썩, 궂세, 궂싸)는 동작성 용언인 ‘오다’와 상태성 용언인 ‘있다’와 끌고루 어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들 수 있다.

24)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pp.161~163.

- 벌써
 - 벌써 끝나부런.(벌써 끝났다.)
 - 그런 일은 벌써 이섯주.(그런 일은 벌써 있었다.)

- 느랴
 - 느랴 일했주.(늘 일했다.)
 - 느랴 어서라.(늘 없더라.)

- 내낭
 - 저슬 내낭 춤드라.(겨울 내내 춤더라.)
 - 집에만 내낭 잇젠 흐난 힘드냐?(집에만 계속 있으려 하니 힘이 드니?)

- 흔디(ㄱ치, ㄱ찌)
 - 흔디 가게.(함께 가자.)
 - 흔디 잇게.(함께 있자.)

- 즈주
 - 즈주 가 보라게.(자주 가 보라.)
 - 즈주 잇주.(자주 있다.)

- 처얏(체얏)
 - 처얏 본 순간부텀(처음 본 순간부터)
 - 처얏 잇는 일은 아니주.(처음 잇는 일은 아니다.)

- 따시(또시)
 - 따시 보게.(다시 보자.)

-이런 일은 따신 어실거라.(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

따라서 제주 방언 시간부사는 동사하고는 잘 어울리나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없고, 형용사·동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은 꽤 있다.

2. 처소부사의 호응

국어의 처소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는 있으나,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작동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나, 상태동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즉 대부분의 동작동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태동사는 방향성은 없이 공간상의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처소부사가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고는 인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처소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동작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의 이동성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순히 존재의 상대적인 위치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방향의 이동성은 ‘멀어짐, 가까워짐, 오고 감’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존재의 상대적인 위치는 ‘위, 아래, 앞, 뒤, 오른쪽, 왼쪽’ 등의 위치성과 공기하게 된다.

이를 의미자질로 나타내면 크게는 [__+방향성]과 [__+위치성]으로 나누어지며,²⁵⁾ [__+방향성]은 [__±접근], [__±왕복]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__+위치성]은 [__±위], [__±앞], [__±오른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25) [+위치성]은 [-방향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방향성]을 [+위치성]이라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치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사용하겠다.

대부분의 처소부사는 그 자체로는 방향성이나 위치성을 가지지 않으며 주로 조사의 첨가를 통하여 방향성이나 위치성을 가지게 된다.

처소부사 중 몇몇 장소부사는 그것 자체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공기할 수 있는 주어와 서술어에 제약을 가진 경우가 있다.

- ① 철수가 저리 간다.
- ② 영수가 이리 온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저리’는 동작의 주체가 멀어짐을 나타내는 동사 ‘간다’와 공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리’는 동작의 주체가 가까워짐을 나타내는 동사 ‘온다’와 공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어의 처소부사는 그 자체에 방향성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명사들이 조사와 결합된 형태로 [+방향성]이나 [+위치성]을 가지게 된다.²⁶⁾

제주 방언 처소부사의 경우도 호응 관계가 국어의 경우와 거의 다름이 없는 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 | | | |
|--|---|---|
| $\left. \begin{array}{l} \text{이디(이되)} \\ \text{그디(그되)} \\ \text{저디(저되)} \end{array} \right\}$ | + | $\left\{ \begin{array}{l} \text{① 이수다, 어수다} \\ \text{② 아즈라, 걸엄수다} \\ \text{③ 살암찌} $ |
|--|---|---|

- ②
- | | | |
|--|---|---|
| $\left. \begin{array}{l} \text{이레} \\ \text{그레} \\ \text{저레} \end{array} \right\}$ | + | $\left\{ \begin{array}{l} \text{① *이수다, 어수다} \\ \text{② 아즈라, 걸엄수다} \\ \text{③ *살암찌} $ |
|--|---|---|

26) 손남익(1999), “국어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 9집, 한국어학회, pp.166~167.

①에서는 ‘-디(디)’에 서술 용언, 즉 서술부의 제약이 없으나 ②의 ‘-레’의 경우는 상태성 동사와 지속성의 특질을 지니는 동사의 통합을 거부한다. 이것은 고정된 공간적인 위치보다는 후행 동작의 이동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다. ‘-레’의 의미특질을 ‘방향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²⁷⁾

가. 처소부사+동사형

- 이레 왔저.(이쪽으로 온다)
- 그레 감저.(그쪽으로 간다)
- 저레 감저.(저쪽으로 가십시오)
- 이 길로 구짜 감저.(이 길로 곧장 가십시오.)
- 가로로 대 보게.(가로로 대어 보자.)
- 바짜 부텨 앗아.(바짜 붙어 앉아라.)

나. 처소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 저디
 - 저디 감저.(저기 간다) <동사와 호응>
 - 저디 잇저.(저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그디
 - 그디 감저. (거기 간다.) <동사와 호응>
 - 그디 잇저. (거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27)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pp.123~124.

- 요디
 - 요디 왁저.(요기 온다.) <동사와 호응>
 - 요디 잇저.(요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이디
 - 이디 왁저.(여기 온다.) <동사와 호응>
 - 이디 잇저.(여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하근디
 - 하근디 땡겨봐도.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동사와 호응>
 - 하근디 잇저.(여기저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어디
 - 어디 감시냐? (어디 가느냐?) <동사와 호응>
 - 어디 이시냐? (어디 있느냐?) <형용사와 호응>

제주 방언 처소부사는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없고, 방향이나 거리(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처소부사는 주로 동사와 어울리고, 곳(정적 의미)을 나타내는 처소부사는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상태부사의 호응

상태부사(양태부사)는 다른 부사들에 비해서 부사의 원초적 기능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용언과 수식 관계에 놓이는 상태부사(양태부사)의 의미 영

역은 시간, 처소, 정도 부사들과는 달리 무척 넓다고 볼 수 있다.²⁸⁾

여기서 용언 수식의 기능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내는 제주 방언 상태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태부사+동사형

- 문뜩 생각나민(문뜩 생각나면)
- 흔저 읍서(어서 오십시오.)
- 빙삭이 웃고 잇다.(빙그레 웃고 있다.)
- 까딱 잘못허당 푸더질뻔 했저.
(까딱/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질 뻔 했다.)
- 졸바로 앓으라.(올바로 앓아라.)
- 잘끈 메여야 안 풀린다.(잘끈 잘 묶어야 풀리지 않는다.)
- 구짜 가민 될 거우다.(곧장 가면 될 것입니다.)
- 거렁청이 날뛰고 잇저.(분수없이 날뛰고 있다.)
- 빨리 들으라.(빨리 달려라.)
- 멩캐지 말앙 거쓴 흐라.(느릿느릿하지 말고 얼른 해라.)
- 걸 그제 안 들엄저.(그것을 곧 안 듣는다.)
- 퀘양 간직흐여.(고이 간직해라.)
- 사름덜이 차 먼저 타젠 들읍더 밀엄저.
(사람들이 차를 먼저 타려고 마구 민다.)
- 물꾸러미 보암저.(물끄러미 보고 있네.)
- 부리나케 들앗주.(부리나케 달렸다.)

28)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연구 제 37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p.60
이 논문에서 말하는 ‘양태부사’는 필자가 사용한 용어인 ‘상태부사’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 손소 밥 지엄 먹엄저.(손수 밥 지어 드신다.)
- 질그시 눈 감양 이서라.(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 퀘약시 경험저.(공연스레 그런다.)
- 집을 크쿨 치우라.(집을 깨끗이 치우라.)
- 모즈가 브름에 오꽃 날아가 부런.(모자가 바람에 그만 날아가 버렸다.)
- 온채 먹으라.(통째 먹어라.)
- 밀꾸루시 허공만 보암시니?(물끄러미 허공만 보고 있니?)
- 무장 먹어도 되쿠가?(제한없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 벌락 주저앗아 부릿주.(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 밧디 검질이 박삭 낫저.(밭에 김이 뻑뻑이 나 있다.)
- 츠츠 트나질테주.(차차 달라지겠지)
- 술째기 읍서예.(살짝 오세요.)
- 두렁청이 블치락 성만 내니 므습다.(갑자기 버럭 성만 내니 무섭다.)
- 무사 날 펜지롱이 뵈시냐?(왜 나를 뵈히 보느냐?)
- 홉부로 먹지 말아사주.(함부로 먹지 말아야지.)

나. 상태부사+형용사형

- 핀쩍 아무것도 웃어노난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 드끈 싸 줘서. (가득 싸 주었어.)
- 거스로 잇저. (거꾸로 있다.)
- 울럿이 몽둥이 영 양손으로 지평 산 이서라.
(우두커니 몽둥이 이렇게 양손으로 짚어 서 있더라.)
- 하 큰 거.(그리 크지 않은 거)
- 운동장에 사름덜이 긱 모여들엇저.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들었다.)

다. 상태부사+동사, 형용사공통형

- 골로로

- 골로로 뿌려라. (골고루 뿌려라.) <동사와 호응>
- 골로로 이서라. (골고루 있더라.) <형용사와 호응>

- 혼차

- 혼차 살았저. (혼자 산다.) <동사와 호응>
- 혼차 잊저. (혼자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오고생이

- 오고생이 일어난 가드라. (고스란히 일어나서 갔다) <동사와 호응>
- 오고생이 잊저. (그대로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아모리

- 아모리 춤아도 화가 안 풀림저.
(아무리 참아도 화가 안 풀린다.) <동사와 호응>
- 아모리 잇다흔들 얼마나 이시커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얼마나 있겠니?) <형용사와 호응>

- 뜨로(트로)

- 부모와 자식이 뜨로(트로) 산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산다.) <동사와 호응>

- 드틀 땀 뜨로 이서야 안 드되진다.
(짜올 때는 따로 있어야 안 짜워진다.) <형용사와 호응>

- 질로지씩
 - 부모와 자식들이 질로지씩 살았저.
(부모와 자식들이 저마다 각각 떨어져 살고 있다.) <동사와 호응>
 - 질로지씩 이서도 ㄴ치 이신 거 담따.
(따로따로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다.) <형용사와 호응>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제주 방언 상태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형용의 상태를 표현하며 동작성 용언을 주로 수식하고, 상태성 용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즉 동사하고 어울리는 것이 훨씬 많은 편이지만 형용사하고 어울리는 것들도 있고,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부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도부사의 호응

국어 부사어와 공기어의 제약을 밝힌 논문²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어의 정도부사는 모든 용언을 수식 한정하여 정도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도부사가 정도성을 보일 수 있는 용언은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용언에 한정된다.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성을 가지고 있어야 정도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을 수 있는 서술어는 상태동사

29) 손남익(1999), “국어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 9집, 한국어학회, pp.171~172.

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에 있어서 정도부사가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이가 매우 예쁘다.
- ② *철수가 매우 달린다.

그러나 몇몇 동작동사의 경우는 정도부사에 의한 수식 한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너무 먹었다.
- ② 매우 때렸다.
- ③ 아주 가거라.

위의 경우는 정도부사가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정도부사와 동작동사 사이에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부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① 너무 많이 먹었다.
- ② 매우 많이 때렸다.
- ③ 아주 멀리 가거라.

국어에 있어서 정도부사는 상태동사나 상태부사같이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어휘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다.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그는 매우 부자이다.
- ② 그는 아주 천재이다.
- ③ *그는 매우 선생이다.

④ *그는 아주 의사이다.

위의 경우에서 보면 정도부사가 수식 한정할 수 있는 명사는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명사이다.³⁰⁾ 따라서 정도부사의 공기어의 의미자질은 ‘[정도부사] - [+상태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정도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을 수 있는 어휘는 품사의 문제가 아닌 의미자질에 있어서 [상태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편, 홍사만은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를 비교·분석하였는데, 두 부사가 용언류와 공기하는 양상과 그에 따른 제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³¹⁾

주로 정도부사는 [+상태성]용언과, 상태부사는 [+동작성] 용언과 공기함이 원칙이나, 용언의 하위자질에 따라 [+사고성] 및 [+존재성] 용언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국어의 한정부사(정도, 상태부사)들은 [+상태성]의 용언자질과 어떠한 특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두드러지는 사실이다. 이들이 용언을 지배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총괄, 분석되어 [+상태성] 자질과는 상관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 ① 정도부사+[+상태성]→용언의 강의화(強意化)
- ② 상태부사+[+동작성]→동작의 상태화(狀態化)
- ③ 정도부사+상태부사+[+동작성] 용언→상태화의 강의화(強意化)

정도부사는 동일 자질인 [+정도성] 용언을 견인(牽引)하나, 상태부사는 [+상태성] 용언을 배척하는 대조를 보이기도 한다. [+상태성] 용언은 [+정도성]의 자질을 점유하기 때문에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으나, [+동작성] 용언은 그 자질의 결여로 공기가 불가하다. 그러나 [+동작성] 용언도 상태부사에 의해 [+정도성]의 자질이 부여될 때에는 정도부사와 공기하여 강의(強意)될 수 있다고

30) ‘부사’나 ‘천제’는 정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선생’이나 ‘의사’는 정도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매우 훌륭한 의사’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훌륭한’은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어휘이다.

31)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 연구”, 동양문화연구소, pp.52~53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주 방언 정도부사의 호응 관계를 구체적 예를 통해 살펴기로 한다.

가. 정도부사+형용사형

- ㄹ장 높다. (가장 높다.)
- 깨 하다(多). (꽤 많다.)
- 훨씬 좋다. (훨씬 좋다.)
- 너피 크다. (너무 크다.)
- 하도 많아서. (무척 많아서)
- 질 좋다. (제일 좋다.)
- 어제보다 두루 아팠저. (어제보다는 덜 아프다.)
- 오죽 아프든 경 흐쿠냐? (오죽 아프면 그렇게 하겠니?)

위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 정도부사는 사물의 높이, 분량, 상태, 크기의 정도를 다 나타내고 있어 상태성 용언인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의 수량사에 관한 어휘적 고찰을 한 논문³²⁾을 보면, 수량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인 체언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며,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했다. 의미 자질에 따라 제주 방언 수량부사 어휘를 ‘분량’, ‘정도’, ‘시간’, ‘수효’로 분류하여 살폈는데,

첫째, 사물의 분량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 쓰는 어휘들로 흐꼼/흐솔(‘아주 자그만큼’, ‘조금’), 하영(‘많이’), 몬딱/몬/다(‘전부’, ‘모두’)

32) 김성룡(2004), “제주방언수량사 어휘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47~55.

둘째, 사람 또는 사물의 정도가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 쓰는 수량부사 어휘들로 흐끔/흐썰/쫘/쫘끔/쫘끔/조끔(‘아주 자그만큼’, ‘조금’, ‘약간), 흐끔흐민/흐썰흐민(‘그저 약간하면’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스뭇/스뭇(‘마음에 사무치도록 아주’), 믄딱/믄/다(‘전부’), 흔그뚜르/흔끗드로/흔긱드로/흔긱디로(‘이거 저거 구분없이 모조리’)

셋째, 시간이 짧거나 긴 동안을 헤아리는 데 쓰는 수량부사 어휘들로 쫘끔/쫘끔/조끔/흐썰(‘조금’, ‘약간’), 흐끔만/ 흐썰만/쫘끔만(‘조금만’, ‘약간만’), 확/속히(‘빨리’)

넷째, 사람 또는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는 데 쓰는 수량부사 어휘들로는 하영(‘많이’), 믄딱/믄딱/모신탕이/믄/모돈/다(‘전부’, ‘모두’, ‘다’), 족아/족영(‘적게’ ‘조금’) 수뻑(‘많이’), 천지만진디(‘아주 많은데’)

등을 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수량부사는 필자가 말하는 정도부사의 개념으로 대체시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나. 정도부사+동사형

- 믄딱 먹엇저.(모조리 다 먹었다.)
- 저거 잡아다 주난, 흔긱드로 잡아난 황황 무섭게 죽여 불거든.
(저거 잡아다 주니까 한꺼번에 모조리 잡아놔서 황황 무섭게 죽여버린다.)
- 대걸룽 해도 웬다.(대강 해도 된다.)
- 즈뭇 궁금혀.(자뭇 궁금하다.)
- 족족 먹어라.(조금씩 먹어라.)
- 보채는 애기 제우 달랠저.(보채는 아기 겨우 달렸다.)
- 일이 거자 끝나감저.(일이 거의 끝나간다.)

- 이서난 일은 쨌다 곱으라게.(있었던 일은 모두 말해 보아라.)
- 짐 정리가 해 돼 감저.(짐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간다.)
- 제법 잘 험저. (제법 잘 한다.)
- 실큰 먹으라게.(실컷 먹어라.)

다. 정도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또한 제주 방언 정도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와 공통으로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흐끔’과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하영’을 예로 들어 보겠다.

(1) 흐끔/흐썰

□ 동사와 호응하는 경우

- 이레 흐끔/흐썰 비킵서.(이쪽으로 조금 비키시오.)
- 그 떡 느만 먹을타? 나도 흐끔/흐썰만 도라.
(그 떡 너만 먹을래? 나도 조금만 주라.)
- 12시 흐끔/흐썰 넘어수다.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 형용사와 호응하는 경우

- 그디 바당은 흐끔/흐썰 짚어, 이?
(거기 바다는 조금 짚지, 그렇지?)
- 삼촌네 밭이 우리밭보다 흐끔/흐썰 널룰거우다.
(삼촌네 밭이 우리밭보다 조금 넓을 겁니다.)
- 그디가 이디서 흐끔/흐썰 벵디우다.
(거기가 여기서 조금 가깝습니다.)

- 이 끈, 흐끔/흐썰 졸라시민 좋으켜.
(이 끈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다.)
- 방이 흐끔/흐썰만 커시민(방이 조금만 컸으면)
- 흐끔/흐썰 노프게 올라라.(조금 높게 올라라.)

위에서 ‘흐끔/흐썰’은 후행하는 깊이, 면적, 거리, 길이, 크기, 높이 등의 공간 척도성 형용사에 호응하는 문장들이다. 이들에서 정도부사인 ‘흐끔/흐썰’은 이 형용사들의 척도를 많은 편이 아닌 ‘조금’으로 제한하고 있다.³³⁾

(2) 하영

□ 동사와 호응하는 경우

- 돈이 하영 들 겁주게.(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 밥을 하영 먹어사 심이 나주.(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 형용사와 호응하는 경우

- 제주도에는 돌도 하영 잇수다.(제주도에는 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하영’은 ‘많이’의 뜻으로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부사로서, 각각 후행 서술어 ‘들다(동사), 먹다(동사)’ ‘있다(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주 방언 정도부사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것, 동사와 어울리는 것, 그리고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골고루 있음을 알아냈다.

33) 강정희(2005), 제주방언형태변화연구, 도서출판 역락, pp.151~152

5. 화식부사의 호응

국어의 화식부사는 용언의 의미 내용에는 관계없이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기능을 가진다. 즉 화식부사(서법 부사라고도 함)는 화자가 문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순히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에 대하여 의미적 제약을 가지는 것이다.

화식 부사는 문장의 서법적인 의미인 가능성, 불가능성, 필연성, 개연성, 우연성 등을 표시하는데 국어의 경우 양태, 서법 표시의 접속어미, 종결어미 등의 형식과 호응할 수 있다. 이들 요소와 형식은 화식부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부사를 분류하면 ‘단정’의 부사, ‘의혹’의 부사, ‘개연, 가설’의 부사, ‘기원’의 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⁴⁾

이들 화식 부사의 통사적 의미 호응 관계를 살펴보면,

(1) ‘단정’의 부사는 ‘단정’과 ‘추정’의 문장 형식과 공기하며, ‘추정’일 때는 ‘-겠’ 보다는 ‘-것’이 더 많이 쓰인다. ‘반드시’와 ‘꼭’은 단정과 필연 의미에서는 의미 중첩을 이루나 ‘모양’을 의미할 때는 의미 차이가 있다.

(2) ‘의혹’의 부사는 의심, 반어 의미의 부사로써 ‘왜’, ‘어찌’는 의문, ‘혹시’, ‘설마’는 의문, 조건, 가정, ‘어찌’는 반어적 문장 형식과 공기한다.

(3) ‘개연’ 부사 ‘아마’는 ‘-겠’과, ‘글썸’은 ‘-르것’과 주로 통합되고, ‘아마’는 객관적 사실의 추정, ‘글썸’은 화자의 주관적 의지를 나타내면서 ‘조건, 가정, 추정’의 문장 형식과 공기한다.

(4) ‘기원’의 부사 ‘제발 아무쪼록, 부디’는 ‘당부’, ‘명령’의 요구성 표현부사로 동사가 소망 의미이면 성분수식을 한다. 그리고 명령, 청유, 기원의 문장 형식

34) 은영두(1986), “현대 국어 부사의 통사·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2~82

과 공기한다.³⁵⁾

제주 방언 화식 부사의 경우도 단순히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에 대하여 의미적 제약을 가지는 점은 다르지 않지만 동사와 형용사 중 어떤 것과 잘 어울리는지 그 호응관계의 용례를 살펴보겠다.

가. 화식부사+동사형

- 기여이 가고 말았저(기어이 가고 말았다.)
- 억질로 가진 말라.(억지로 가지는 말아라)
- 무짜 먹었저.(깨끗이 모두 먹었다.)
- 기영저영 살다보민 베롱철 날도 올 테주.
(그럭저럭 살다보면 괜찮아질 날도 오겠지)
- 느시 안 헝켄 (도저히 안 하겠다고)
- 꼳꼳내 안 돌아왔저.(끝끝내 안 돌아왔다.)
- 흐다 미워허질 말라.(부디 미워하는 말아라)
- 역불로 지각했저.(일부러 지각했다.)
- 아이 감저.(안 간다.)
- 흐마떼민 잊어부릴뻔 했주.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 했다.)
- 그자 얻는 건 문제가 잇주.(거저 얻는 건 문제가 있다.)
- 똥 어멍 담따.(똥 엄마 닮다.)

나. 화식부사+형용사형

- 여복 꺽꺽 흐민 경헤시카?(오죽이나 갑갑하면 그렇게 했을까?)

35) 윤영두(1986), 앞의 논문, pp.87.

- 피쩍 웃어노난(전혀 없어서)
- 영 뜨날 것 같진 안흐다.(전혀 다를 것 같지는 않다)
- 츨 딱흔 노릇이여.(참으로 딱한 노릇이여.)
- 그닷 멀진 않다.(그다지 멀지는 않다.)
- 츠마 경홀 순 엇다.(차마 그럴 수는 없다.)

다. 화식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 무사
 - 그되 무사 감시냐? (거기 왜 가느냐?) <동사와 호응>
 - 무사 좋으냐?(왜 좋으니?) <형용사와 호응>
- 게무로
 - 게무로 가시카.(설마 갔을까?) <동사와 호응>
 - 돈 꺾 달랜 흐는디 게무로 업텐 허카?
(돈 빌려 달라고 하는데 설마 없다고 할까?)<형용사와 호응>
- 츠라리
 - 츠라리 가지 말라게.(차라리 가지 말아라.) <동사와 호응>
 - 츠라리 어신 게 좋아.(차라리 없는 게 좋아.) <형용사와 호응>

제주 방언 화식 부사의 경우 동사와 어울리는 것이 많고, 형용사와 어울리는 것도 있으며,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도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어휘 중에서 본래부사를 내용에 따라 시간부사(32개), 처소부사(13개), 상태부사(43개), 정도부사(25개), 화식부사(35개), 접속부사(12개)로 나누었고, 접속부사를 제외한 부사들에 한해서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우선, 시간부사, 처소부사는 동사하고만 어울리거나,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 그 외에 상태, 정도, 화식 부사는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 동사와 어울리는 것, 동사와 형용사 공통으로 잘 어울리는 것들로 그 유형이 골고루 있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 방언 본래부사는 동사와의 호응 빈도수가 형용사보다 훨씬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는 주로 용언과의 호응 관계만 살폈지만 “원체 빨리 들암저(워날 빨리 달린다)”에서처럼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저디 집은 너의 현집이여(저 집은 너무 낡은 집이다.)”에서처럼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또한, “범인은 바로 아덜이랜.(범인은 바로 아들이라고 한다.)”에서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게무로 그런 일이 춤말 이시카?(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겠냐?)”와 같이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피기에 앞서 국어의 부사의 의미자질에 따른 공기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어의 시간부사는 시제에 따라 [__+과거], [__+현재], [__+미래]의 형태소와 공기할 수 있으며, 시간 지속의 여부에 따라 [__+순간], [__+지속]의 어휘와 공기할 수 있다.

국어의 처소부사는 그 자체에 방향성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명사들이 조사와 결합된 형태로 [+방향성]이나 [+위치성]을 가지게 된다.

국어의 상태 부사는 공기관계에서 동작동사와는 동작의 양태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고 다만 의미충돌이 있을 때는 제약을 받아 공기제약이 있으나 동사에 기동자질을 부여하면 공기가 가능하다.

정도부사의 공기어의 의미자질은 ‘[정도부사] - [+상태성]’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즉 정도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을 수 있는 어휘는 품사의 문제가 아닌 의미 자질에 있어서 [상태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화식부사는 용언의 의미 내용에는 관계없이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기능을 가진다.

아울러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통해 알아 본 제주 방언 부사의 기능을 정리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① 수식 기능

방언 정도부사는 주로 상태성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고, 방언 상태부사는 주로 동작성 용언을 수식하며, 방언 처소부사는 방향성, 위치성의 자질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

② 시간 표시 기능

방언 시간부사는 대체로 문장 전체의 시간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일부 수식 기능도 겸한다.

③ 공기 기능

방언 화식부사는 단순히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 기능을 가진다.

IV.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

제주도 방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어휘의 특이성이다.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언중들에게 있어서 제주도 방언은 그 어휘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돋보이고 생경한 언어로 느끼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제주 방언은,

첫째, 제주 특유의 지역적 특성에서 연유된 특수한 어휘들이 많다.

둘째, 기본 의미는 같으면서도 그 주변적이고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가 많다. 특히나 미세한 의미 차이는 노년층일수록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셋째,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잔존해 있다.

넷째, 한 단어에 대해서 그것의 다양한 형태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ㅇ’의 접미를 통한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을 방언 부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 지역 특수 어휘

제주 방언의 어휘들은 표준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표준어하고는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들이 많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무사 : 왜

① 느 무사 경 험시냐?(너 왜 그러니?)

② 무사 경 다올림디?(왜 그렇게 재촉하느냐?)

‘무사’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생소한 제주 방언의 하나로서 표준어의 ‘왜’에 해당하며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 두루 : 덜

① 두루 아팠저게.(덜 아팠다.)

② 두루 먹어진 생이여.(덜 먹어진 모양이다.)

③ 두루 익은 감(덜 익은 감)

‘두루’라는 말이 표준어로는 ‘빠짐없이, 골고루’ 또는 ‘널리,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덜’의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 ‘어떤 기준보다 약하게, 정도에 못 미치게’라는 뜻이 있고, 둘째, ‘보다 적게, 보다 줄여서’ 셋째, ‘충분하거나 불완전하게’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말 역시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 혼저 : 어서, 빨리

① 혼저 읍서예.(어서 오십시오.)

② 혼저 들으라.(빨리 달려라.)

‘혼저’라는 말은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발음을 잘못 인식하여 ‘혼자’라는 말로 들을 때가 있어서 의미에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서, 빨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 역시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 고들베 : 연달아

① 고들베 귀찮게 굴엄저.(자꾸 귀찮게 군다.)

② 세콜방애 고들베 지영 저녁이나 밝은 때 하라.

(셋이 쪼는 방아 연거푸 쪼어 저녁밥이나 밝은 때 지어라.)

‘고들배’는 표준어로 ‘쉬지 않고 자꾸, 연달아, 연거푸’의 의미를 나타내고 지역에 따라 ‘고들배’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 말 역시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 갯사 : 아까, 방금

① 갯사 뛰어가는 걸 봐신디. (방금 뛰어가는 걸 봤는데.)

② 누가 떠난 것도 갯사 알안. (네가 떠난 것도 아까 알았다.)

③ 갯사 졸았는데? (조금전에 말했는데?)

갯사는 표준어로 ‘아까, 조금전, 방금’의 의미에 해당되며 지역에 따라 ‘갯사, 갯세, 갯썰, ㄱ썰’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말 역시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믄딱/믄썩’(표준어로 ‘모두’의 의미), ‘오고생이’(표준어로 ‘본디 그대로’의 의미), ‘오꼳’(표준어로 ‘그만, 완전히’의 의미) 등이 표준어와는 의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말들로서 제주 방언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있는 지역 특유의 어휘들이다.

2. 미세한 의미 차이

제주 방언에는 기본 의미는 같으나 미세한 의미 차이로 다의성(多義性)을 띠는 어휘가 많고, 부사에서도 그 의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흠치 : ‘한꺼번에, 함께’와 ‘전혀(부정의 뜻)’의 두 가지 상이한 뜻을 드러낸다.

① ‘함께, 한꺼번에’의 의미

- 흠치덜 떠나라. (함께들 떠나라.)
- 흠치 해 불라. (한꺼번에 해 치워라.)

② ‘결코, 전혀’의 의미

- 그까짓거로는 흠치 안 된다. (그 정도로는 결코 안 된다.)
- 그건 흠치 아니여. (그것은 전혀 아니다.)

(2) 흔저(어서, 빨리)

① ‘어서’의 의미: 반기는 의미가 강하다.

- 흔저 읍서. (어서 오십시오.)

② ‘빨리’의 의미: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의미가 강하다.

- 흔저 들으라. (빨리 달려라.)

(3) 드끈, 드끈 (실컷, 가득/넘치게)

① ‘실컷’의 의미

- 술을 드끈 마셨다. (술을 실컷 마셨다.)

② ‘가득’의 의미

- 드끈 싸 주라. (가득 싸 주라.)

3. 고어(古語)의 잔존

어휘 분야에 있어 제주 방언이 다른 방언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다 할 특징

은 고어(古語)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제주 방언에는 중세 국어 내지 근대 국어의 고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잔존해 있으며, 이러한 고어형의 어휘들을 제주 방언의 언중들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발화한다. 부사의 경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ㄴ장(‘가장’의 의미), ㄴ세(‘아까, 조금전, 방금’의 의미), ㄴ자(‘아직도,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의미), ㄴ치(‘같이, 함께’의 의미), ㄴ(‘금방, 이제’의 의미), ㄴ만히(‘가만히’의 의미), ㄴ저(‘먼저’의 의미), ㄴ써(‘벌써’의 의미), ㄴ빨리(‘빨리’의 의미), ㄴ연히(‘자연히’의 의미), ㄴ츄니(‘천천히’의 의미) 등의 예들은 특히 아래아(·)가 들어간 말들로서 이런 예는 그 밖에도 매우 많다.

앞에 든 예 외에도 제주 방언의 보수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⁶⁾

- ① 아이 가는 사름 아이 가고, 해방나난, 게
(아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해방이 되니까)

‘아이’는 현대어의 ‘안’의 고어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어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부정사 ‘안’은 ‘안<아니<아이’의 결과임을 알게 된다.

- ② 족영도 말곡 하영도 말양(덜도 말고 더도 말아서)

‘족영’과 ‘하영’은 우리말 고어 양(糧)의 ‘족다(少)’와 ‘하다(多)’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영’이 결합된 부사형이 부사로 굳어진 형태다.

- ③ 모녀도 경 해나난, 무시거 배와주켤?
(먼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뭐 배워준대?)

‘모녀’는 ‘먼저’의 보수형으로서 현재 제주 방언에서도 발화되고 있다.

36)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pp.262~264.

- ④ 살아남은 사람 벨부 어서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어)

‘벨부’는 ‘별로’ 대응하는 제주 방언의 양태부사다. ‘벨부’는 한자어 ‘別部’의 음차로 보아야 둘째 음절의 ‘부’를 설명할 수 있다. 부사 ‘벨부’외에 ‘베랑’도 있는데, 이 보수형은 현재 제주 방언에서도 노년층에서 발화되고 있다.

- ⑤ 이거 괴양 들렁 가사메
(이거 곶게/ 조심스럽게/ 잘 들고 가야 해.)

부사 ‘괴양’은 중세 국어의 ‘괴다(寵, 愛)’의 어간 ‘괴-’에 부사형 어미 ‘-양’이 결합되어 제주 방언에 보존되어 있는 문헌어의 흔적이다. 부사 ‘괴양’은 원래의 의미 ‘사랑하다’의 의미가 일반화되어 ‘곶게, 조심히, 잘’과 같이 양태성을 수행한다.

4. 여러 형태의 공시적 사용

제주 방언에는 한 어간의 어형이 2중 3중 4중 등 여러 어형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이 있다. 즉, 한 어사가 쌍형(雙形)으로 나타남은 물론, 말에 따라서는 서너 개 이상의 어형으로 나타나서 그들 어형이 함께 공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주 방언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명사인 경우, ‘나무’를 뜻하는 말로 ‘남, 낭, 나모, 나무’ 등이 쓰이고, ‘나물’을 뜻하는 말로 ‘늑물, 느물, 나물’ 등이 공시태로 쓰이고, ‘쌍둥이’를 뜻하는 말로 ‘굴오기, 굴우기, 굴애기, 쌍둥이’가 쓰이며, ‘바다’를 뜻하는 말로 ‘바룻, 바당, 바룻’ 등이 쓰인다. 부사인 경우도 이와 같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표준어의 ‘그러거든’에 해당하는 말로 ‘게거든, 게건, 게경, 게결랑, 게거들란, 게거들랑’이 공시태로 쓰이며 지역에 따라 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다. 또, 표준어의 ‘전부’에 해당되는 제주 방언 부사로는 ‘믄, 문딱, 문짜, 멘딱, 말짱, 모도, 모다, 모두’가 역시 공시태로 쓰이며 두루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외에도 ‘조금’을 뜻하는 제주 방언에 ‘조금, 쪄금, 쪄끔, 쪄, 조곰, 쯤, 흐썰, 흐썰, 흐끔, 흐끔’ 등의 형태가 있고, ‘얼른’을 뜻하는 말에 ‘거슨, 거썸, 걸른, 얼푯’이 있으며, ‘거의’를 뜻하는 말로 ‘거진, 거자, 건쭈’이 있는데, 이들 예들도 역시 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의미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5. 부사 만들기의 특이성

제주 방언의 조어법의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ㅇ’을 접미시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명사인 경우 호칭에서 ‘어멍(어머니)’, ‘아방(아버지)’, ‘할망(할아버지)’, ‘할으방(할아버지)’, ‘아지망(아주머니)’, ‘아지방(아주버니)’ 등의 말에 ‘ㅇ’을 접미시켜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부사인 경우도 ‘ㅇ’을 접미시켜 단어를 형성한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영저영(그럭저럭)’, ‘하영(많이)’, ‘족영(조금)’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고, 상태부사인 경우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특히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말들이 많다. 그 예로는 곱상곱상(눈을 떴다 감았다하는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매달려 있는 모양), 어장바장/어상바상(서로 비스듬한 모양), 흥글망글(걸음 걸을 때 허리를 흔드는 모양) 등의 말이 있으며 이들 어휘들의 공통점은 ‘ㅇ’이 들어감으로써 어감(語感)이 경쾌하다는 점이다.

V. 결 론

제주도 방언은 타 지역의 방언들에 비해 특유의 독자성을 유지해 왔으며 희귀하고 귀중한 고어(古語)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 국어 연구의 보물 창고로도 여겨진다.

특히 제주 방언에는 표준어와는 다른 맛깔스러운 느낌과 독특함을 보이는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 방언 자료집이나 사전에만 실려 있고 실제로 젊은 언중들이 쓰지 않아서 그 가치를 인식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노년층 언중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 부사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고 제주 방언의 특질을 찾아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연구 대상으로는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부사와 일부 노년층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사 중에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부사는 그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의성어나 의태어, 첩어를 제외한 본래부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제주 방언 자료를 조사하여 추출한 바를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제주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 언중들에 의해 쓰이는 말 중 필자가 직접 채록한 부사를 포함시켜 그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의 풍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 방언 부사의 갈래를 최현배의 분류 방식(시간, 처소, 정도, 상태, 화식, 접속 부사)에 적용시켜 나눈 후 각각의 예들을 고찰하였다.

첫째, 시간부사는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의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예들을 제시하였다. ‘일찌거니(일찌갱이), 벌써, 궂사(궂세, ㄹ췌), ㄹ자, 느랑, 먼저, 장흐레로, 흥상’

등이 일부 예이다.

둘째, 처소부사는 곳, 쪽(방향), 뜨기(거리)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예로는 ‘곳’을 나타내는 말에 ‘저딴, 그딴, 이딴’ 등이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말에 ‘이레, 그레, 저레’ 등이 있으며 ‘거리’를 나타내는 말에 ‘뽕’ 등이 있다.

셋째, 상태부사는 바로모양부사와 건너로 모양부사로, 바로모양부사는 다시 속모양과 겉모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ㄱ득, ㄱ딱, 거쨌, 고제, 궤양, 물꾸루미, 문뜩, 부리나게, 드끈, 골로로’ 등이 있다.

넷째, 정도부사는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예로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는 말에 ‘ㄱ장, 너피, 하도, 혼끗드로, 문뜩, 하영’ 등이 있고, 정도의 낮음을 나타내는 말에 ‘제우, 두루, 오족, 조꿈, 흐쨌, 족영’ 등이 있다.

다섯째, 화식부사(진술부사)는 풀이말의 단정을 요구하는 부사,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부사, 바람을 보이는 부사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예를 제시하였다. 풀이말의 단정을 요구하는 부사의 예로 ‘억질로, 무쨌, 똑, 느시, 기여이, 퍼쨌’ 등이 있고,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부사에 ‘게무로, 무사, 흐믈며, 흐마트민’ 등이 있고, 바람을 보이는 부사에 ‘츄라리, 흐다’ 등이 있다.

여섯째, 접속부사는 앞에 말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를 제시하였다. 그 예로 ‘게거든, 게고제고, 게나네, 게당, 게메, 게민, 게도, 게므로, 게나제나, 기영아네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제주 방언 부사의 갈래를 분류해 내는 과정을 통해 언중들에게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방언들을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시간부사, 처소부사는 동사하고만 어울리거나,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상태, 정도, 화식 부사는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 동사와 어울리는 것, 동사와 형용사 공통으로 잘 어울리는 것의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존재하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방언 본래부사는 동사와의 호응 빈도수가 형용사보다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사와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고찰한 결과 제주 방언 부사의 기능을 정리하면,

첫째, 방언 정도부사는 주로 상태성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고, 방언 상태부사는 주로 동작성 용언을 수식하며, 방언 처소부사는 방향성, 위치성의 자질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방언 시간부사는 대체로 문장 전체의 시간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일부 수식 기능도 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방언 화식부사는 단순히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으로는,

첫째, 제주 특유의 지역적 특성에서 연유된 특수한 어휘들이 많은데 그 예로, ‘고들베(연거푸, 연달아)’, ‘무사(왜)’, ‘궂사(아까)’, ‘흔저(어서, 빨리)’, ‘두루(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본 의미는 같으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가 많다. 그 예로 ‘흙치’라는 말은 ‘한꺼번에,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고, ‘결코, 전혀’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여 다의성(多義性)을 띠게 된다.

셋째,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잔존해 있다. 특히 아래아(ㅏ)가 남아 있는 어휘들이 많아서 제주 방언은 고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 단어에 대해서 그것의 다양한 형태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표준어의 ‘그러거든’에 해당하는 말인 ‘계거든, 계건, 계경, 계걸랑, 계거들란, 계거들랑’, 표준어의 ‘전부’에 해당하는 말인 ‘믄, 문딱, 문작, 멘딱, 말짱, 모도, 모다, 모두’, 표준어의 ‘조금’을 뜻하는 말로 ‘조금, 쪄금, 쪄끔, 쪄, 조곰, 줌, 흐썰, 흐썰, 흐끔, 흐끔’ 등이 있으며 이들은 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ㅇ’의 접미를 통한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영저영(그럭저럭)’, ‘하영(많이)’, ‘죽영(조금)’, ‘곰상곰상(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매달려 있는 모양)’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고, 상태부사인 경우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특히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말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강공택(1986), “제주방언의 반복 복합부사 구조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영봉(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호』
-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고이금(1995),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정의(1980), “15세기 국어의 부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충구(1999), “방언·사회언어학”, 『국어학연감』
-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연구 제 37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훈(1980), “국어의 위치 제약에 대하여”, 『연암 현평효 회갑기념 논총』
- 김기혁(1995), 『국어문법연구 형태·통어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민수(1974),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성룡(2004), “제주방언수량사 어휘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화(1998), “제주어와 문학”,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
- 김태곤(1976), “국어의 본래부사고”, 『어문논집 11호』, 중앙어문학회
- 김현권(1999), “어휘부구축을 위한 현대 한국어 부사의 기술-한국어 부사분류와 기술의 문제”, 『언어학 제24호』, 한국언어학회
- 김형규(1972), 『국어학개론』, 일조각
- 남기심·고영근(1999), 『표준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승현(1990), “현대국어의 반복부사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순덕(1997), “제주 방언 지정사 부정 표현”, 『제주대학교 국문학보 14호』
_____(2000), “제주 방언의 보조 용언 연구”, 『탐라문화 21호』
서정수(1975), “국어부사류어의 구문론적 연구”, 『현대국어문법』
_____(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_____(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화정(2000), “국어부사의 통사적 제약성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낙수(1975),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성낙수 외 공저 (1991), 『국어사 개설』, 신원문화사
손남익(1999), “국어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 9집』, 한국어학회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심재기(1983), 『국어어휘론』, 집문당
안병희 · 이광호 공저(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오창명(1995), “제주도 방언에 대한 학술 조사의 성과와 반성”, 『백록어문 11호』
_____(2000), “제주도 방언연구의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 21호』
_____(2004), “방언과 국어 교육”, 『백록어문 18~19호』
온영두(1986), “현대 국어 부사의 통사·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현주(1998), “근대 국어 정도부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I 품사』, 역락
이기문(1993), “제주 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13호』
이상규(1988), 『방언연구방법론』, 형설출판사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 5, 탑출판사

- 이영희(1982), “제주도방언의 상징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주행(1992), 『현대국어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임유종·박동호·홍재성(1997),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성”, 『언어학 제28호』,
한국언어학회
- 정승철(1998), “제주도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 8권 제4호
98년 겨울』
- 채완(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출판부
- 채희락 (2001), “한국어부사어의 분류와 분포 제약”, 『한국언어정보학회
2001학술대회논문집』
- 최창렬·심재기·성광수(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출판사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 연구”, 동양문화연구소

<Abstract>

Study on Adverbs in Jeju Dialect

Moon, Kab-Soon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Jeju dialect has maintained its peculiar originality compared with other parts of Korea and is regarded as a treasure trove of Korean linguistic research because of the many precious and rare archaic words maintained in Jeju dialect to the present day.

Although on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 is its abundance of adverbs, research has been strangely lacking in this area.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words in Jeju dialect for expressing satisfactory feelings or for showing uniqueness, unlike standard Korean. Such words are printed only in source books of Jeju dialect or dictionaries and the Korean-speaking public doesn't use them, so their value is not appreciated by people. Only a limited number of people use not a few of the existing Jeju dialect adverbs.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determine the special qualities of Jeju dialect by examining and grouping the adverbs of Jeju dialect and checking their grammatical agreement.

Adverbs in the 「Jeju Language Dictionary」 (Jejudo, 1995) were selected as research targets in addition to adverbs containing explicit meanings used by elderly Jeju people and the residents in rural areas. While adverbs are divided into original and derivative categories by word formation, research focused on original adverbs in Jeju dialect excluding onomatopoeic words, mimetic words and duplications, and words used by the general Korean-speaking public (standard Korean).

The abundance of adverbs in Jeju dialect was confirmed by looking into source data of Jeju dialect and comparing this with standard Korean.

Jeju dialect adverbs were grouped into branches by Choi, Hyun-Bae's taxonomic method (time, place, degree, conditional, modal and conjunctive adverbs) and then examples of each branch were inspected.

Next, the agreement of Jeju dialect adverbs was examined in relation to inflected words (verbs and adjectives) modified mainly by adverbs.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 adverbs matched verbs better or adjectives. It was found that the agreement of original adverbs with verbs appeared far more often than was the case with adjectives.

The following are the three functions of Jeju dialect adverbs referred to above. First, the modification function [in the cases of degree, condition, time and place adverbs]. Second, the time indication function [in the case of time adverbs] and third, the co-occurrence function [in the case of modal adverbs].

In addition, the lexical features of Jeju dialect adverb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ot of unique regional vocabulary. Second, many words with the same basic definition have subtle shades of meaning differing in detail. Third, many archaic words are still in use in Jeju. Fourth, various forms originating in one lexicon are used by the public, and fifth, word formation using the suffix 'ㅇ' has been extensively developed.

Jeju dialect has originality and history quite different from the Korean mainland. Nevertheless, these days it is in danger of dying out in the face of the onslaught from standard Korean due to a variety of factors. At this poin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is important to preserve the unique Jeju dialect that is disappearing. Therefore abundan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le seniors who have kept the old traces of Jeju dialect are still living. The same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collecting, organizing and analyzing data on Jeju dialect. The establishment of a formal grammar system is also an urgent task.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